
팝업씨어터 공개사과 이후

(부제 :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시작하며)

2019. 12. 2. (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팝업씨어터 공개사과 이후

(부제 :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시작하며)

- 일 시: 2019.12. 2.(월)
- 장 소: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 카페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이행협치추진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진행 : (1부) 김미도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2부) 나희경 연극기획자

비고	시간	내용
(1부)	14:00-14:10	[개 회] 김미도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14:10-14:20	[여는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4:20-14:30	[발제 1] 팝업씨어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윤혜숙 연출가
	14:30-14:40	[발제 2] 팝업씨어터 후속조치는 왜 필요한가 김진이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14:40-14:50	[발제 3]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사회적 기억의 원칙과 방향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14:50-15:00	휴식
(2부)	15:00-15:05	[경과보고 팝업씨어터 후속조치] 송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15:05-15:15	[발제 4] 팝업씨어터 후속조치를 위한 제언 정진세 작가, 연출가
	15:15-16:15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6:15~16:25	[마무리] 팝업씨어터 후속조치 공청회 의견 반영 계획 이양구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목 차

○ 발제 1	1
팝업씨어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_ 윤희숙 연출가	
○ 발제 2	4
팝업씨어터 후속조치는 왜 필요한가_ 김진이 전 예술위원회 직원	
○ 발제 3	8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사회적 기억의 원칙과 방향_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 발제 4	13
팝업씨어터 후속조치를 위한 제언_ 정진세 작가, 연출가	
○ 부록 1	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및 검열 의혹 사건	
○ 부록 2	43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 부록 3	46
팝업씨어터 관련 후속조치 사항	

팝업씨어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윤혜숙 연출가

팝업씨어터 사건은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획한 ‘팝업씨어터’에서 일어난 국가 검열사건입니다. 팝업씨어터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김정 연출의 <이 아이> 공연 중 대사로 언급된 ‘노스페이스’, ‘수학여행’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당시 공연장인 씨어터카페에 있었던 문화사업부장은 즉시 카페 영업을 재개시켰고, 같은 날 공연예술센터장, 문화사업부장, 운영총괄본부장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날 공연 취소를 논의했습니다. 공연 취소가 여의치 않자, 그들은 다음날 공연 현장인 씨어터카페에 나타나 동선 확보를 위해 옮겨두었던 테이블을 옮겨 배우의 동선을 방해하고, 카페 영업을 재개시키고, 카페 내 전광판을 켜고, 카페 BGM 볼륨을 높이는 등의 저열한 방법으로 공연을 방해하였습니다. 이후 공연 예정이었던 윤혜숙, 송정안 두 연출에게 별안간 대본 제출을 요구하였고, 두 연출가는 이 명백한 검열행위에 항의하며 공연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 취소 사실을 사전 공지하지 않고, 공연 당일 현장에서 관객을 조용히 돌려 보냈습니다. 당시 연극인들인 대학로예술극장 앞에서 피켓팅레이시위, 파법(破法)씨어터 등을 진행하며 사실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조사 결과를 조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위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그 전부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연 방해’와 ‘대본 검열’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과 해결과정을 통해, 이 사건이 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 팝업씨어터 사건은 ‘드러날 진상’이 없는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팝업씨어터 담당직원이었던 김진이의 공익 제보를 통해 이미 모든 사실은 세상에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고,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온 연극인들이 피켓을 들고 목이 터져라 사실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내부조사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내부 조사 결과는 조직의 허물을 덮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고, 가해자들은 징계나

처벌 없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거나, 그저 임기가 다 되어 조직을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드러날 진상도 없고, 가릴 시시비비도 없는 팝업씨어터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실 인정’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사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앞 다투어 사과 자리를 마련했지만, 번번이 실망만 가득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를 알 수 없을 만큼,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팝업씨어터 사건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지난’ 정권의 과오이지 자신들의 과오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개 사과 자리를 정권이 교체된 뒤 거쳐야 할 의례적인 행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허한 사과 자리가 반복되자 나중에는 피로감이 몰려왔고, 큰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제대로, 딱 한 번만 하십시오!”

사실 인정 없는 공허한 사과가 반복되고, 드디어 지난 2019년 7월, 박종관 문예위원장의 공개 사과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음을 기관장의 입을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첫 기억을 떠올려보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젊은 예술가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맺은 첫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어떨까요? 우리 기억 속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사회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축소판이었습니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이런 부패한 조직 문화가 자기 마음대로 예술가의 공연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술행정가의 오만함과 만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오만한 예술행정가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직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상급직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의 진실을 공익 제보한 직원은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도 없었습니다. 가해 예술행정가의 오만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대책회의’까지 하면서 공연을 방해하고 대본을 검열했을까요?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윗사람들 눈치만 잘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직을 위해 저지른 부당한 일은 조직이 알아서 덮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오만함을 키운 것 아닐까요? 응당 처벌받아야 할 가해 직원들에게 커다란 우산이 되어주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익 제보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전보 조치를 실행, 결국 퇴사를 하게 만들며 자신의 권력을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직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스스로 가려내게 되지 않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팝업씨어터 공개 사과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될 모든 일들은 반드시 현실적·실천적이고, 피부에 와 닿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맺은 첫 기억은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 예술가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맺은 기억은 우리의 기억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위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까? 예술행정가들은 예술가들을 시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둘 사이를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새로 들어온 문체부, 문예위 직원들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교육을 받았습니까? 정당한 고발에 대해서 조직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공개 사과 자리에서 약속한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원합니다.

팝업씨어터로 인한 상처와 생채기 난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춰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동력이 되어 계속해서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 이제 더 이상 팝업씨어터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데” 진술하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팝업씨어터 사건이 “우리에게”가 아닌 “모두에게”, “무엇이었는데”가 아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팝업씨어터 사건이 다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예술행정가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팝업씨어터 사건이 이후 수많은 블랙리스트 피해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최소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팝업씨어터 사건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최소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팝업씨어터 사건 해결을 위해 만났던 만큼은 다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십시오. 그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보여 줄 수 있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이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팝업씨어터 사건은 제대로 된 사과의 선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선례,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의 선례,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이행의 선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후 수많은 블랙리스트 피해 사건들이 팝업씨어터 사건을 최소 기준점으로 삼아 제대로 된 사실 인정, 진심어린 사과, 책임자 처벌, 실천적인 후속 조치의 단계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것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팝업씨어터’ 후속 조치는 왜 필요한가?

- 우리에게 남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위하여 -

김진이 전 예술위원회 직원

지난 7월 어렵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한 공개 사과를 받았습니다.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과했잖아”,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게 남아있는 몇 가지 질문을 되묻고 싶습니다.

1. ‘무엇’이 재발하면 안 되는 것일까

‘팝업씨어터’를 떠올릴 때면 몇몇 무거운 단어가 연상됩니다. 블랙리스트 적용, 공연 방해, 대본 검열과 같은. 누군가의 ‘행동’에 집중한 이 단어들만 들여다보면 그 행동에 스며든 태도와 의미들이 자주 흐릿해지곤 합니다. 작년 4월 발표된 ‘팝업씨어터’ 진상조사 결과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다소 딱딱한 언어들로 나열된 문장들이지만 그 안에는 당혹스러운 진술들도 보입니다.

가령 ‘팝업씨어터’ 섭외 대상 예술가들이 정보기관의 블랙리스트 신원검증을 하기엔 “너무 신진 예술가들이어서 프로필 검색이 안 된다”거나 당시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부진들의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그만두게 하면 안 되나’, ‘다른 재미있는 거 올릴 수 없나’ 등)되었”다는 것. <이 아이> 공연이 “표현해내는 형식 자체가 팝업씨어터의 기획 의도와 맞지 않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거나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공연을 방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 예정되었던 ‘팝업씨어터’ 후속 작품의 “대본에서도 <이 아이>처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 각각의 행간에서 저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했습니다.¹⁾

15분-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돌발적으로 펼쳐지는, 누군가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들

1) 본 내용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부록.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공연 1. 2-2.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및 검열 의혹 사건”의 참고인 등 대인조사(p. 865-888)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공연으로 여겨졌던 ‘팝업씨어터’를 둘러싼 일련의 행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진상조사 결과에는 모두 담길 수 없었던 그 시간의 기억들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적용’, ‘방해’, ‘검열’이라고 기술되었던 행동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도는 물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젊은 예술가들을 대하는 태도, 공연의 가치를 셈하는 기준, 이런 행동들이 가능했을 조직의 기만적인 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맘때, 씨어터카페 밖 길가에서 예술가들이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실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했던 것은 아마 벌어졌던 행동들 사이에 놓여있던 그 무엇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팝업씨어터’ 사태의 재발 방지는 이러한 행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 어디에서 어떻게 또다시 겪게 될까

오늘 공청회가 열리는 이곳, 씨어터카페는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씨어터카페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팝업씨어터’ 기획 취지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일상’적인 장소인 셈입니다. 공연 방해는 은밀한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실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 퇴사 이후, 저는 이 장소를 차마 오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떠올리기만 해도 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가 언제든 방해와 검열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상조사 결과에도 밝혀져 있듯, 제가 ‘팝업씨어터’를 담당하면서 섭외하고자 작성했던 예술가들의 이름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신원검증 리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저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했을까요?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 검열이나 블랙리스트를 과거의 일로 바라보겠지만, 저는 여전히 제 삶과 일상에서 다시금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경험보다 더욱 교묘해진 방법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돌아오는 것은 아닐지, 혹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실행에 참여하거나 동료의 실행을 묵인하고, 후배에게 또다시 이 괴로움을 겪게 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단지 제 개인의 일이라면 재발 방지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일은 조금씩 다른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3. 후속 조치는 무엇일까: ‘공개’라는 관점에서

많은 예술가들의 사실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내부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관계와 다른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은폐’ 행위로서 “공연 방해는 없었다”는 내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인들은 사실인정도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이었던 저는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후속 조치’였습니다.

진상조사가 발표된 이후, 진정한 의미의 후속 조치 첫 번째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적인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가 중요했다고 여겼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개’ 사과로 이 사태의 시작이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2015년 당시 수립되었던 세월호 관련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배제 방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공개 사과가 중요했던 점은 이렇듯 진상조사 이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공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유 이후에야 적어도 저는 ‘팝업씨어터’를 비로소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년 전 ‘팝업씨어터’에서 공연 방해와 대본 검열이 실행되고 나서, 저는 공익제보, 이른바 내부 ‘고발’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제게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공연 전날, 부당한 이유로 <이 아이> 공연을 취소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자 제 행동은 명령불복종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공연 당일, 공연을 방해하기 위한 테이블 이동과 음량 조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빌미가 되었고, 저는 ‘팝업씨어터’ 기획에 불순한 저의가 있다는 이유로 공연예술센터 장에게 도리어 사과를 요구받았습니다. 공연 이후, 저는 참여 예술가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 위원장에게도 직접 경과를 보고하며 감사도 요청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노조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연예술센터장을 만나서 사실인정과 사과 또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변은 ‘기다려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내부고발자가 되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에는 좋은 선배들이 많은데 왜 외부에 먼저 알렸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외부에 먼저 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끝까지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팝업씨어터’를 함께 했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료들에게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들을 저 역시 ‘기다려라’라는 말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게 남은 것은 고발이라는 폭로였지만 그것은 저에게 남아있었던 유일한 ‘공개’의 방식이었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후속 조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4. 후속 조치는 무엇일까: ‘변화’라는 관점에서

침묵에 응답을 요구하는 과정은 길었습니다. 그 사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위원장도 바뀌었지만, 이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온 피해와 고통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일을 거듭 반복해야 했습니다. 나 혼자 과거의 고통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혹여나 또 다른 피로감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는 개인 각자가 오롯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어떤 결과들은 미진했습니다. 벌어진 사태에 대한 처벌과 책임은 그 자체로 판단되기보다 다른 잘못들과의 비교 속에서 조율되어야 했습니다. 배상은 그 단어가 불러올 오해가 우려되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후속 조치의 방향은 없었던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일이 아니라 있었던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하는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7월에 있었던 공개 사과 자리에서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의견들은 그러한 미진함을 가리켰다고 여겨집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로부터 4년 전, 2015년 12월 2일에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위원장에게 보냈던 메일에 저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한 달 후 지금의 모습, 위원회의 현재 입장을 예측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일말의 기대를 놓을 수 없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가 얼마나 무궁무진해질 수 있는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입니다. 삶이 제게 어떤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느낄 수 있어서, 센터와 위원회에서 보낸 시간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부제에서 ‘회복’과 ‘기억’이라는 단어는 저를 자주 망설이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상처의 기억들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복이 다시 그 시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팝업씨어터’의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새로운 변화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노력은 현장의 요구로만 이루어질 수도 없으며 기관의 책무로만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사회적 기억의 원칙과 방향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피해자의 권리와 민주시민의 책무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겪은 사회가 구현해야 할 이행 기정의(transitional justice) 원칙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 가해자의 처벌과 징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 치유와 재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공직자·미디어종사자·공공기관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시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교육을 포함한 만족과 사죄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형사처벌이나 금전배상과 같은 법적 수단으로 환원할 수 없는 적극적인 정치적 열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의 정신적 정화와 사회제도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공동체가 지는 책무는 옅은 의무가 아니라 두터운 의무다(이재승, 2014a: 184).

진상 규명은 국가범죄의 양상과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피해자는 개인적 고통을 딛고 사회적으로 국가범죄를 고발한 기소자다. 가해자의 처벌과 징계는 최소한의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범죄의 속성상 형법과 행정법의 영역보다 넓어야 한다. 범망을 피했던 ‘가해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상 ‘가해자의 사과’ 형태를 취하지만, ‘사과한다는 말’로 해소될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가 깊은 만큼 그 피해에 ‘맞설 수 있게 하는(치유하는)’ 과정은 피해자 회복에 조력하는 인권옹호자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인권옹부즈퍼슨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자의 모습을 아직은 발견할 수 없다. 인권옹호자는 인권피해자의 ‘친구’이면서 대리인이다. 그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료 민주시민으로서 대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조건을 조성한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종사자에게 행하는 인권 교육은 그런 방법 중 하나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개인적 배·보상과 명예회복을 넘어 사회적 배·보상과 명예회복 그리고 사회적 기억을 요청한다. 피해자 개인이 개별적인 법적 배·보상 소송을 하게 하지 않고 입법에 의한 일괄적 배·보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범위가 법적 피해자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정치적 피해자로 확장해야 한다. 블랙리스트로 갈라졌던 문화예술계의 피해자성을 부각해야

하고, 국가범죄에 노출된 민주시민의 피해자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 결과 함께 기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의 문제해결자로 연대한다. 국가의 불법과 부정의에 맞섰던 기억들을 모두 소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불법의 시대에 국가범죄에 가담하거나 방관했던 검찰과 법원은 이제 와서 피해자를 대리한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은 오히려 공동피고다. 정의가 필요할 때 정의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태도는 2차 가해이자 국가범죄를 은폐하는 범죄다. 블랙리스트는 다양하다. 사건들의 무더기다. 무더기가 가능했던 건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조직적이었다. 그런데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 역사가 지속하는 한 진상규명을 향한 노력을 계속될 것이다. 사회적 기억은 진상규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잡이다.

문체부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문체부의 면책은 있을 수 없다. 문체부라는 행정부처로서 존재하는 한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감죄(減罪)는 없다. 감벌(減罰)과 감책(減責)을 원한다면, 국가범죄의 몸통을 다 드러내는데 협력해야 한다.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피해와 상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을 지울 수도 없다. 마치 피해자 명예 회복 정책 한 두 개나 금전적인 피해 배상이나 보상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구는 것이야말로 3차 가해다. 사과하는 가해자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겠지만, 사과는 말 한마디와 함께 고개 한 번 숙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복적 정의는 국가범죄의 상처를 회복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가체제, 헌법체제의 원기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한다.

피해자를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아 있지 않게 하는 일이 회복적 정의다. 피해자가 민주시민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동료 민주시민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요구이자 권리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과 배상 그리고 회복을 넘어 사회구조의 혁신을 정면으로 추구하는 변혁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다.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배·보상 그리고 사회적 기억의 방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당사자성을 넘어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체제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민주시민이 정치적 책임의식으로 회복적 정의의 길에 함께 해야 한다. 지배권력은 문화예술인을 지렛대 수단 삼아 민주시민의 의식을 통제하려 했다. 문화예술인의 인간 존엄 침해는 곧 민주시민의 인간 존엄 침해였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공론화는 이제 민주시민의 몫이다. 당사자들의 외로운 투쟁으로 고립되지 않게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야 할 민주시민의 주권 행사다. 국가폭력은 사사로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물질적 배상으로 만족하는 열은 관점이 아니라, 국가폭력을 야기한 구조와 사고방식을 혁신하는 두터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이재승, 2014b: 229).

첫째, 가해자 처벌을 위해 공적 고발자로 나선 피해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

다. 이제는 가해자를 향한 사적·공적 분노를 가라앉히며 피해자 자신의 언어로 그러나 담담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뚜렷하게 말할 수 있게 하고, 만족할 수 없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 추궁을 넘어 어떤 정치적 책임 추궁을 해야만 가해·피해의 관계를 넘어 당연한 동등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지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회복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등을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의 범주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 피해자는 물론 잠재적 피해자를 최대한 포함해야 한다. 이른바 문체부에서의 수사 미의뢰, 미징계, 검찰에서의 불기소, 법정에서의 각하, 기각 또는 축소 인용 등 법적·행정적 범주를 탈피해야 한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회복적 대화 센터’를 열어야 한다. 형식적인 인권옴부즈퍼슨이 아니라 트라우마 치유, 가해자의 ‘사과’와 관계 회복, 공무원 인권교육 등을 전담하여 고민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동시에 ‘문화예술인 인권옴부즈퍼슨’ 제도가 동행해야 한다.

둘째,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음을 고려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는 것과 같이 심사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개별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과 함께 공적 명예 회복 또는 피해의 공적 배보상을 고민해야 한다. 국가 재정은 기재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시민은 누구라도 공정한 예산집행자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인참여 예산을 넘어 문화예술인지예산을 확보하고 민주시민결정예산으로 문화예술재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회복적 정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억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기념관 설립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문화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예술표현방식으로 상시적으로 민주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로서 기억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저항했던 광장의 공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간섭으로부터 해방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그 제도의 바깥 또한 열려 있어야 한다. 공간과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모니터링과 피드백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문화예술광장’을 마련해야 한다.²⁾

사회적 기억의 대상은 박근혜·이명박 정권 시절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한정할 까닭이 없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국가범죄에 저항했던 문화예술인들을 모두 소환하여 해원과 회복의 장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한국헌정사에서 문화예술계 ‘검열’ 또는 표현자유 제한의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사건들과 양심적 병역거부권 사건들 같은 사상·양심의 자유 문제,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그리고 저항의 역사를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과거 사건에 머물지 않고 현재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2) 예를 들면, 광장극장 블랙리스트(<https://www.facebook.com/theaterblack>);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 2017 국가분쇄, 2018 분단국가, 2019 원조적폐.

사람들과 함께 국가의 '검열'에 저항하는 현재적인 인권적·민주적 실천이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백서는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고, 공직자 및 문화예술행정 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의 인권적·헌법적 의미와 재발방지책 등 일련의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내용의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했다(백서 3, 2019: 163). 피해자들은 교육 내용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향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요구하는 내용이 강의자의 입을 통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적 책임을 면한 공직자 및 문화예술행정 종사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적 책임과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자기자신이 민주시민임을 자각하고 가해자에서 동료 민주시민으로 회귀할 수 있는 기회다. '블랙리스트 피로감'의 호소는 여전히 가해자 또는 권력자로서 또는 명령복종자로 남고자 하는 '평범성의 악'이다.

백서는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억·기록·보존·전승하는 사업 및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다(백서 3, 2019: 164).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체주의적인 국가범죄에 가담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에서 핵심적인 반면교사 사례다.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피해자의 관점 및 민주시민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구성해서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해야 한다.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블랙리스트 없는 사회를 만드는 민주시민을 위한 문화예술매체별 교육 교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피해 보상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사태의 성격상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괄적 배·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별 배·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배·보상을 통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집단적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을 필요로 하는 과거청산 사건이 허다한 한국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그렇지만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 내거나 미래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행기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원칙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국가범죄 사건의 피해자들과 민주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설령 당장은 국회의 문턱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대규모 인권 침해의 회복적 정의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를 패싱하는 민주시민의 직접 입법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참고문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20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2.

이재승(2014a). 국가범죄와 야스퍼스의 책임론. 사회와역사 101. 2014. 3. 183-217.

이재승(2014b). 국가범죄와 야스퍼스의 책임론. Jaspers, Karl(야스퍼스, 칼)(2014).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 엘피. 2014. 11. 219-270.

팝업씨어터 후속조치를 위한 제언 - “관계회복을 위한 만남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

정진세 작가, 연출가

지난 7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사건인 ‘팝업씨어터’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자리에서 피해당사자와 연대하여 함께 싸운 동료들의 이름으로 그에 대한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입장문에서는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해서 우리(편의상 함께 싸운 동료들을 우리라고 함)는 “예술가를 국가가 검열한 일련의 사건들과 비슷하면서도, 보다 다층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 취해진 조치에 있어서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은 서로 다른 상처와 고통을 경험했”음을 고하였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2015년 10월 18일 대학로 씨어터 카페에서 벌어진 공연 방해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이후에 있었던 한국공연예술센터(문예위 산하)의 대본 검열 행위와 이에 항의하는 팝업씨어터 예술가에 대한 공연취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공개와 이에 대한 동료 예술가들의 릴레이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내부자의 진실고백과 거짓사과, 이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표시를 비롯하여 그 다음해에 이어진 화학작용 페스티벌과 권리장전 페스티벌, 블랙텐트를 비롯하여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예위의 공개사과 이후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임을 실감하고 있다.

팝업씨어터의 ‘피해자’로 규정된 이후,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끔, 그때의 고통을 (재)증언하기 위해, 다시 ‘그때, 거기’의 피해자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다. 블랙리스트의 끔찍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관료들과 시민들, 그리고 후배들과 선배들을 위해 다시 한번 팝업씨어터의 무대에서 역사적 퍼포먼스를 펼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웅담이나 노스텔지어가 될 수 없다. 반복해서 재수행하면 할수록, 외려 그것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뿐이다. 팝업씨어터 이후 연극하는 동료들이 더더욱 창작에 몰두하게 된 것은, 보란 듯이 만회하겠다는 예술가의 포부나 혹은 오기 같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피해자’로 머물러 있는 그 규정된 정체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팝업씨어터 사건은 그때 거기의 우리들이 함께 뛰어 들어간 ‘입구’였다. 씨어터 카페의 문을 나서자, 거리의 문이 열렸고, 축제의 문이 열렸고, 극장의 문이 열렸다. 팝업씨어터의 연대성을 가지고 동료의식을 발휘하여 그 시간들을 버텼다. 그 시간들은 외롭지 않았고 창작하는 즐거움을

알게해 준 귀중한 시간들이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 성장했고, 자기의 자리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뀌고 문체부와 문예위가 혁신을 부르짖는 그 시간 속에서도,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일말의 진실규명을 통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사건이었던 팝업씨어터 사태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이 더해졌다. 과연, 사건 혹은 사태라고 규정된 역사적 시간은 어떻게 종료되는 것일까. 그러한 경험과 사례가 우리에게 있는가.

피켓을 쓰고 피켓을 드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피켓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은 우리에게 낯설다. 그리고 그 기억을 보존하고 유의미하게 남겨두는 일은 우리에게 어렵다. 돌이켜보면, 낯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때 거기의 ‘나’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창작에 매진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팝업씨어터 사태는, 고민하고 자책하는 소수에게만 그 짐을 지워두었던 것은 아닐까. 진상규명과 사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행과정 혹은 그 이후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연대와 저항은 다소 맹목적이고 다소 순진했음을 고백한다. 우리에게 보다 성숙한 결말이 필요하다.

헌법학자 오동석 선생이 블랙리스트 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헌법적 처방의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진상규명과 회복적 정의, 국가책임과 재발방지, 사과와 화해, 그리고 용서이다. 헌법적 처방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예술적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예술작품이 그러하듯 성찰과 사유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셈이다. 여기서 ‘이해’란, 그 죄를 감싸안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우리의 세기가 우리에게 지운 짐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짊어진다” 는 뜻이다.

먼저, 팝업씨어터의 후속조치는 무엇보다 먼저 사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사건을 온전히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예술가, 예술행정가, 검열행정가, 관객, 시민, 연대 예술가, 언론기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체들이 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살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증언도 담아야 한다. 공연방해에서 공개사과에 이르기까지, 팝업씨어터의 시간들을 단계적으로 살필 필요도 있다. 본 사안은 피해자의 타임라인과 가해자의 타임라인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다. 예술에 대한 검열행위가 ‘집단지성’과 ‘집단야만’의 경계를 오고갔음을,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끊임없이 바뀌었음을 기록해야 한다.

팝업씨어터 사태의 특이점은 예술가와 예술행정가의 사이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갑-을 관계로 맺어진 2010년대 현장의 파트너십은, 고용자인 상대를 언제든지 지원 권력의 위계로 억누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했고, 그것이 무명의 젊은 예술가일 경우에는 더 손쉽게 더 교묘하게 나타났다.

본 사건을 통해 예술가를 지원하는 문예위의 산하 공연예술센터의 공연부장 혹은 센터장의 지위에 있는 기성세대의 역할주체가 젊은 예술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는 체감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장의 예술가를 무서워하는 대신, 이들은 문체부와 청와대의 눈치를 보았다. 예술가를 존중하기는 커녕 무시하고 조롱하였다. 이들에게 ‘예술’이란 입신을 위한 수단이거나, 자기보전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검열을 받은 예술가와 동년배였던 예술행정가들이 사건의 진실을 고백하고 퇴사함으로써 저항한 것과는 다르게, 관리자들은 끝끝내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의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러한 검열행위는 개인의 (일탈)문제이나 특정한 사건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10년이 넘어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으나, 여전히 지난 시절에 매몰되어 있는 - 혁신되지 못한 - 상태로 머물러 있는 아르코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봐야 한다. 다시말해, 팝업씨어터 사태는 2005년의 문예위와 2015년의 문예위의 예술가를 향한 인식의 차이, 혹은 10년이 지난 현장에서 변화한 위상과 역할에 따른 역할 주체들의 소통불가 상황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팝업씨어터 사태는 그런 점에서 젊은 예술가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벌어질수 있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예위의 관료주의가 심화된 만큼, 예술가들의 자기방어 논리도 강해졌다. 예술행정가와 예술가가 동반자가 아닌 적대자로 입장이 변화한 것은, 비단 정권만을 탓할 일도 아니리라.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를 책임져야 하는 관계임에도, 그 역할을 방기한 대가가, 그 후세에게 짐으로 지워진 것은 아닐까. 선배들과는 다르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문예위의 출범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지도 못했고, 호혜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그러나 검열사태로 굳어진 그 인상을 갖고 영원히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싶지도 않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주체들과 새롭게 동료의식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작된 문예위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따라서 팝업씨어터의 후속조치는 문예위가 어떻게/얼마나 (젊은)예술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현장의 예술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하는 소통의 방법론을 다시 살피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예술가들도 문예위가 어떤 조직이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했는지 역사적 맥락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예술행정가가 소통을 포기하거나,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와 조직의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 이제 막 그 체제/시대/세대를 지나 객관적인 거리를 취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예술계의 민간-공공의 상호 파트너십 공동연구”를 후속조치로 제안한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유효한 소통의 경험사례는 무엇인가, 사적인 친분이 아닌, 당사자성을 지닌 주체들 간의 연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상호-감수성을 지니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연구를 통해, 2020년대에 유효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다. 문예위의 구성원들이 현장의 예술가와 직접 소통하면서 그 차이를 발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파생되는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피해자’나 함께 싸운 동료 정도가 아닌, ‘동반자’와 ‘책임자’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록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및 검열 의혹 사건

1. 조사 내용

1. 기초사실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전신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제2항¹⁾과 제20조²⁾에 근거하여 2005년 출범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나. 팝업씨어터 <공원은공연중>

(1) 대학로봄업프로젝트 <공원은공연중> 10월 팝업씨어터

(가) 예술위가 작성한 2015년 8월 21일 경 작성한 '대학로봄업프로젝트 <공원은공연중> 10월 프로그램 - 팝업씨어터 세부 추진 계획(안)' 문서에 따르면 당초 참가자 선발은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³⁾

(나) 하지만 별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섭외 형태로 참가자를 섭외하였는데, 2015년 10월 9일 확정된 <팝업씨어터>의 세부계획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⁴⁾

가. 목적

- 1) 대학로 축제 분위기 고취 및 관객 만족도 제고
- 2) 극장 공간 밖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보편적 예술향유를 증대하고자 함

나. 프로그램 개요

- 1) 사업명 : 공원으로 나온 예술가 <공원은공연중>
- 2) 프로그램명 : 팝업씨어터
- 3) 기간 : 2015. 10. 17(토)~18(일), 24(토)~25(일)
- 4)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로비, 앞마당,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 북스테이지 등
- 5) 관람료 : 무료

1)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예술위 작성, 대학로봄업프로젝트 <공원은공연중> 10월 프로그램-팝업씨어터 세부 추진 계획(안), 1쪽. 2015. 8. 21.

4) 예술위 작성, 대학로봄업프로젝트 <공원은공연중> 10월 팝업씨어터 세부 추진 계획, 1쪽. 2015. 10. 9.

6) 내용 : 극장 로비, 카페,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돌발적으로 펼쳐지는 팝업형태의 연극, 무용, 음악 등 다 장르 공연
다. 세부 프로그램(안)

장르	공연자/공연단체	장소	일정
연극	김정(연출)	씨어터카페	10.17(토), 18(일)
	윤혜숙(연출)	씨어터카페	10.24(토), 25(일)
	송정안(연출)	아르코 앞마당	10.24(토), 25(일)

(다) 내부 합평회

10월 팝업씨어터 공연 행사가 끝난 뒤 예술위에서는 2015년 10월 27일 내부 합평회가 열렸는데, 이는 1) <팝업씨어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합평회 진행 2) 관객 민원 발생 등 운영 전반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이 자리에는 임OO 문화사업부장을 비롯하여 문화사업부 직원 14인이 참여하였다⁵⁾

2. <공원은공연중> 팝업씨어터 참가자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리스트-'16.2.1.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에 따르면, 2015년 9월 16일 경 <공원은공연중> 사업에서 연출가 전진모를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⁶⁾

공원은 공연중('15.9.16/ 공연과) - 1명	○ 전진모
--------------------------------	-------

(2) 예술위 직원 000 작성 자술서

예술위 팝업씨어터 담당 직원 000가 작성하여 박명진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던 자술서 중에서 팝업씨어터 참가자 선정과정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팝업씨어터 경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26일(수)~9월 2일(수)

<팝업씨어터>를 기획하고자 참여예술가 섭외 리스트(안)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원은공연중' 팀(000, 000, 000)은 장르별로 나누어 참여예술가를 리서치했습니다. 저는 연극과 무용/다원 분야에 집중했고,

5) 예술위 작성, 대학로봄업프로젝트<공원은공연중> 10월 팝업씨어터 내부 합평회 개최, 1쪽. 2015. 10. 27.
 6)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 작성, '리스트-'16.2.1.현재', 25쪽.

음악 분야는 000씨가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연극은 역대 AYAF 선정자, 10분 희곡릴레이 등 이러한 팝업씨어터 성격의 공연이 가능한 공연을 올렸던 연출, 오랜시간 조연출을 하고 최근에 데뷔한 신진연출가 등을 염두하여 리스트업 했습니다.

- 9월 3일(목)

섭외대상 리스트를 문화사업부장님께 보고 드렸고 검토하시며 몇몇 예술가를 제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리서치 후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9월 4일(금)

오후 7시 7분, 최종 수정 자료를 문화사업부장님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 9월 7일(수)

오후 3시 50분 경, 센터 담당 C 사무관에게서 문화사업부장님을 찾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재중이라고 말씀드리니 팝업씨어터 담당자를 찾으셨고 제가 연결 받았습니다. 제게 섭외 대상 리스트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공연단체 대표자의 출생연도를 기재해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급하다고 하셔서 바로 문화사업부장님께 전화내용을 보고 드린 후, 기입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사업부장님께 이 내용을 카톡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오후 5시 40분 경, 출생연도를 표기한 리스트를 담당 사무관에게 보내드렸습니다.

- 9월 15일(화)

오후 5시~6시 경,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문화사업부장님께 경과사항을 여쭙보았습니다. 문화사업부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C 사무관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제출한 섭외대상 리스트에서 진행하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문화사업부장님과 저는 연극 4편, 무용 4편, 음악 4편을 섭외하기로 했고, 저는 해당 공연자 및 공연단체의 연락처를 구하고 직접 연락을 드리며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 9월 21일(월)

문화부에서 컨펌해준 연극분야 리스트에서 일정이 가능한 연출들은 3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섭외할 연출가들을 했습니다.

- 9월 22일(화)

문화사업부장님께 섭외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리스트를 함께 보고 드렸습니다. 부장님께서 연극은 3편으로 진행하자고 하시고, 추가로 섭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참고인 이00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정책과 과장 이00는 오00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에 대하여, 청와대 김00 선임행정관이 예술국 국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 중 1인에게 그때 그때 보내며주면 배제 지시를 받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배제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유하였고, 배제 리스트는 각 장르 별 담당 과 과장이나 사무관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

(2) 참고인 임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문화사업부장 임OO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공원은공연중> 참여 작가 모집 과정에서 전진모 연출가가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C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에게 전화가 와서 팝업씨어터 참가 후보자 명단을 보내라고 하여서 담당 직원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그 뒤로 C 사무관이 섭외자들의 생년월일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다시 하였고, 담당 직원 OO를 통해서 다시 보내주었더니 C 사무관은 너무 신진 예술가들이어서 프로필 검색이 안 된다고 하었다고 하면서, 아마 자신이 담당 직원에게 전진모 연출이 성기웅 연출⁸⁾의 조연출이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말하고 배제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⁹⁾

(3) 참고인 전진모의 진술

참고인 전진모 연출가는 위원회 조사에서 예술위로부터 팝업씨어터 공연 참가 제안을 받고 고민하다가 일정 문제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을 먼저 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배제된 것인지는 당시에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¹⁰⁾

3. <이 아이> 공연 방해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공연 내용 때문이었는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예술위의 <이 아이> 공연방해

2015년 10월 17일 예술위 씨어터카페에서 <이 아이> 1회 공연을 관람하였던 관객인 황OO 씨가 예술위 홈페이지에 2015년 10월 19일 경 ‘주최측의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라는 제목으로 민원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

- 드디어 4:30분이 되어 검은 옷을 입은 사람¹²⁾이 나와서 책상을 잠시 옮겨 달라고 하면서 연극이 시작되는 듯 했다.
- 그런데 카페 한쪽에서 직원 신분증을 걸고 앉아 있던 여자¹³⁾가 갑자기 책상을 옮기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 여자는 이 카페는 영업을 계속해야 하고 책상을 옮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히스테리를 부리듯이 사람들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다.
-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공연을 방해까지 한 주최측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7) 이OO 1회 진술조서, 21쪽. 2018. 2. 1.

8) 성기웅 연출은 문체부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18쪽에 등재되어 있다.

9) 임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10) 전진모 전화면담조사, 1쪽. 2018. 4. 11.

11) 황OO 관객의 예술위 홈페이지 민원 게시글. 2015. 10. 19.

12) <이 아이> 출연배우 김영준.

13) 임OO 문화사업부장.

이에 대하여 예술위는 2015년 10월 20일 경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변을 하였다.¹⁴⁾

- 10월 17일(토) <이 아이> 첫공연에서 소음 발생과 음료수 문제로 씨어터카페 이용객에게서 복수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 **공연 전에 공연 공간을 확보하고 카페의 영업을 중지시키는 형태는 팝업씨어터 공연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18일 공연에 대하여 담당직원을 통해 공연단체 측에 카페의 테이블 이동 없이 공연하도록 요청하였다.**
- 공연 시작과 함께 테이블을 이동시킨 것은 사전에 조정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제지하려던 중 다소 격양된 태도를 보여서 관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었다.

(2) 김정 연출 등 3인 연출가의 항의글

(가) 2015년 10월 27일 경 김정 연출은 3인 연출가의 이름으로 ‘팝업씨어터 <이 아이> 연출 김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항의 글을 예술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⁵⁾

- 2015년 10월 18일 담당자로부터 공연 전에 미리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고 1시 경 아르코 로비 카페에서 만났다. 담당자는 굉장히 곤란해 하면서 당일 공연에서 카페 내 어떤 것도 공연을 위해 변경시킬 수 없고, 심지어 테이블과 의자 위치조차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다.
-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듯 하여서 배우들과 막막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씨어터카페 테이블에 앉아 대책을 강구하여 보았지만 극중 내용 중에 자식이 죽어서 바닥에 뒹구는 장면이 있어서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 예술위 공연예술센터장 유OO 등이 나타나 공연을 위해서 이동해 두었던 테이블을 직접 옮기거나 (직원들에게) 옮기라는 지시를 하였다. 임OO 문화사업부장에게 공연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공연하세요. 이 상태에서.’라고 말하였다.
- 공연이 종료된 후 배우들에게 그러한 환경에서 공연을 하게 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억울함을 임OO 문화사업부장에게 토로하자, 임OO 부장은 ‘저희가 제작자잖아요. 돈 안 받으셨어요?’라고 질문했다.
- 며칠 후 팝업씨어터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담당 직원은 사실 17일(토) 공연 후 유OO 센터장, 양OO 본부장, 임OO 문화사업부장 3인 등이 회의를 하였고 회의 결과 김정 연출의 <이 아이> 공연을 취소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였다. 담당 직원은 공연을 취소시키는 일은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명령 불복종 운운하였고, 그뒤로 공연은 하되 카페 내 어떤 것도 공연단체의 요구대로 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 담당 직원에 따르면 17일 공연을 관람하던 임OO 문화사업부장이 공연 내용 중에서 ‘수학여행’을 갔다가 주검이 되어 돌아온 아이들이 입고 있던 잠바가 ‘노스페이스’라는 부분에서, 옆에 있던 담당자에게 ‘수학여행이랑 노스페이스가 왜 나와? 이거 세월호 얘기잖아.’라고 얘기하며 즉시 일어나 카페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며 카페 밖으로 나갔다.

(나) 한편 김정 연출에 이어 2015.10.24.~25 기간 동안 <후시거나 포켓도> 공연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윤혜숙 연출가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황OO 관객의 예술위 홈페이지 민원 게시글에 대한 예술위의 답변. 2015. 10. 19.

15) 김정 작성, ‘팝업씨어터 <이 아이> 김정 연출입니다.’, 2015. 10. 27.

- 2015년 10월 17일 <이 아이> 1회차 공연을 관람했지만 카페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신선하다는 반응은 있었지만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 2015년 10월 20일 예술위 담당자로부터 씨어터카페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으니 대안으로 북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하라고 하면서, 공연 대본 제출을 요청하여서 대본을 보내주었다.
- 2015년 10월 21일 서면을 통해서 예술위 측에 항의하였고 임OO 문화사업부장으로부터 해명 전화를 받았고 사과도 받았다. 사과 내용은 주최 측이 <이 아이> 공연을 방해한 점, 급작스럽게 공연 공간을 변경하게 된 점이었다.
- 임OO 문화사업부장은 사과를 하면서 윤혜숙 연출가의 <후시거나 포켓또> 공연을 당초 예정대로 24일~25일 씨어터카페에서 공연해도 좋고 카페사용에 대한 요청도 모두 수용하겠다고 하였지만, 공연 방해 및 대본 제출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공연을 보이콧하겠다.

(다) 한편 2015.10.24.~25. 기간 동안 <불신의 힘> 공연을 하기로 하였던 송정안 연출 또한 입장을 발표하고 주최측의 공연방해 행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하고 대본 제출 요구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라) 이러한 세 연출가의 입장에 대해서 예술위 문화사업부장 임OO은 김정 연출이 올린 민원 게시글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월 17일 첫날 공연을 보러 갔을 때 테이블이 가장자리로 다 치워져 있는 상태를 보고 팝업씨어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라인더 소리 때문에 커피 주문도 중지시켰다는 것을 알고 '누가 카페를 정지시켰냐!'고 담당자에게 화를 냈다.
- <이 아이> 대본 시놉을 처음 받았을 때 '세월호?'라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연출가가 세월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하여서 '뭐든 잘 하면 되지.'라고 말했다.
- 17일에는 작품 내용에는 관심도 없었고 테이블 밀어놓은 것에만 신경이 쓰여서 담당자를 질책하였다.
- 18일 공연 전에 테이블을 원상복구하라고 했던 것은 팝업씨어터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18일에 카페에 와서 당초 (전날) 공연이 끝나자마자 옮겨두어야 할 것조차 옮기지 않고 내내 테이블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심하게 화를 냈다.
- 18일 공연 전에 발생한 관객과의 말 다툼에 대하여는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

(마) 임OO 문화사업부장의 입장에 대한 3인 연출가의 입장

2015년 10월 27일~30일에 걸쳐 김정 등 3인의 연출가는 임OO 문화사업부장의 답변에 대하여 재차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OO 문화사업부장 개인의 문제로 축소, 은폐하지 말 것. <이 아이> 공연장에서 직접 테이블을 옮겨 배우들의 등장로에 배치하여 공연을 방해한 유OO 공연예술센터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할 것.
- 17일 <이 아이> 공연 이후 공연예술센터장, 운영총괄본부장, 문화사업부장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통해 18일 <이 아이> 공연을 취소할 것, 여의치 않을 경우 공연을 방해할 것 등을 논의 한 사실, 회의 결과에 따라서 18일 <이 아이> 공연을 공연예술센터장, 문화사업부장이 직접 나서서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명할 것.
- <이 아이> 공연 이후 윤혜숙, 송정안 두 연출가에게 대본 제출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것.

- 10월 20일 답변에서 예술위가 언급한 '공연관객들로부터 복수의 항의'의 실체에 대하여도 명확히 밝힐 것(예술위는 10월 20일 답변 글에서는 '카페 이용객의 이용 불편 컴플레인'을 이유로 하였다가, 10월 29일 답변 글에서는 '팝업씨어터 취지에 맞지 않아서' 공연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임.).
- 10월 24일, 25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윤혜숙, 송정안 두 연출가의 공연 거절 메일은 23일 발송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는데, 예술위는 공연 취소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공지도 하지 않은 채 공연 예정 시각에 공연장을 찾아온 관객들에게만 양해를 구하고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이유를 해명할 것.

(바) 이에 대하여 공연예술센터장 유OO는 답변글 형태로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테이블 배치로 혼선을 드리는 등 김정 연출가가 원하는 공연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
- 10월 24일~25일 진행 예정이던 윤혜숙, 송정안 연출의 공연에 대해서 공연 취소 공고를 이행하지 않고 두 연출가와 소통하지 않은 점도 사과한다.

(3) 팝업씨어터 관련 조사 결과 보고

예술위 김OO 기획조정부장이 작성한 '팝업씨어터 관련 조사결과 보고' 문서에 따르면, 예술위는 2015년 11월 6일~11월 10일 기간 동안 유OO 센터장 등 9인의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인사부장이 '팝업씨어터 사업에 참여중인 공연단체에 대한 공연방해 및 취소 요구 등의 진위 여부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조사자 중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3인(유OO 센터장, 임OO 부장, OOO 대리)에 대하여는 주의서를 발부하였다.¹⁶⁾ 이 조사 결과 보고서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7일 22시 회의 관련 조사 결론 : **기관의 의사결정은 공문 혹은 결정권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취소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논의 과정에서의 발언을 근거로 취소 등이 논의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세월호 등에 대한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회의의 중요한 의제였다고 보기 어려움. OOO 직원이 인터뷰에서 주장한 세월호가 배경에 있다는 주장은 담당 부장이 첫 공연 직후 "이거 세월호 얘기 아니야? 노스페이스랑 수학여행이 왜 나와?"라며 화내고 나간 모습, 카톡으로 전달받은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세월호는 중요한 의제가 아니었음. 또한, **카페의 영업을 평소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이 실질적으로 공연 방해의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극장공연이든 장소특정형 공연이든 장소에 대한 제약은 불가피한 요소임. 이를 방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당함이 명확해야 하나 공연장이 카페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제약으로 보임. 공연 동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연은 방해받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됨. 그리고 주최 측이 공연을 방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2. 17일 23시 지시 관련 조사 결론 : 담당부장은 "취소할 수 있는지", OOO 직원은 "취소하라"로 주장하며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임. 그러나 이후 **명령불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취소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대책 회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직전 회의에서 취소에 대한 결정은 없었음. 회의에서 카페의 영업을 평소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장이 취소를 지시한 것은 월권행위로 보임.** 센터장으로 민원 접수 등 상급자의 의사가 배경임을 밝힘으로써 지시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점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킴.

16)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관련 조사결과 보고', 1쪽. 2015. 12. 31.

3. 18일 2회 공연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결론 : 카페의 영업을 평소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간부직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2회 공연에서 일부 시행(카페 음악, 모니터, 음료 판매)되었고 테이블 배치에 대해 담당부장과 단체 사이에 충돌과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해당 충돌에 담당부장의 감정적 격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로 인해 관객과 단체가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임. 부장의 업무처리는 합당해 보이나 그 과정에서 과도한 감정적 행동으로 고객의 불편함을 끼친 부분은 인정됨. 그러나 **공연에 있어 장소 제약을 둘러싼 이견은 특별한 것이 아님. 또한 2회 공연 역시 해당 분량을 별 문제없이 모두 공연하였음. 확보된 공연 영상으로도 20분간의 공연에 특이사항은 전혀 없음.** 000 직원은 카페의 영업을 평소대로 유지하라는 부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단체와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지시사항을 알리는 데 그쳤음.
4. 대본 요구 등 공연 섭외 및 진행 경과에 대한 조사 결론 : 김정 외 2개 작품의 연출가는 '이 아이' 공연 후 대본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본을 검열하려는 것이라며 공연을 거부하게 됨. 따라서 대본 등 공연 진행 경과가 중요함. **공연을 제작, 기획하는 주최 측의 입장에서 공연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 담당부장이 지시한 8월말에 대본이 확보되었으면 그 후 검열에 대한 오해는 없었을 거라는 점에서 8월말~9월초 시점에서 주최 측의 공연에 대한 파악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센터장, 본부장, 부장, 담당자 간에 파악 정도가 같았는지, 달랐다면 왜 달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

예술위 강00 경영인사부장은 2015년 11월 6일~10일 기간 동안 유00 공연예술센터장 등 9인의 피조사를 대상으로 당사자와의 직접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00 공연예술센터장의 진술

유00 공연예술센터장은 2015년 11월 6일 예술위 자체조사에서 ① 2015년 10월 17일 당일 전체 행사 종료 후 문화사업부 사무실로 내려가 보니 양00 본부장, 이00 부장, 임00 부장과 직원 몇 명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부서장들과 공연 진행상황 등을 얘기하면서 임 부장이 <이 아이>공연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커피 판매 중단에 대한 고객의 불만 제기가 있었다는 것과 작품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② <이 아이>둘째 날 공연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갔지만, 행사 취지에 맞춰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즉, 공연을 전제로 미리 장소를 세팅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팝업공연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공연 때문에 카페 영업을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③ 공연 내용이 너무 침울하게 표현되고 작품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로 둘째 날 공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그만두게 하면 안 되나', '다른 재미있는 거 올릴 수 없나' 등)되었지만 말 그대로 의견제시 단계에 그쳤을 뿐이며, 공연중단이나 취소는 전혀 결정한 바 없었다. ④ 2015년 10월 18일 둘째날 공연 시작 조금 전에 카페에 갔다. 카페 안이 평소 영업하던 상태와는 다르게 미리 공연을 위해 준비한 듯 테이블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어서 직원들이 다시 원래대로 옮겨놓을 때 잠시 거들다가 씨어터카페 바로 옆에 있는 복스태이지 앞 길거리 공연 준비상황을 점검하러 건너갔다. 이후 씨어터카페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⑤ 2015년 10월 18일 둘째 날 공연이 끝나고 저녁에 문화사업부에 모여서 공연 중에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내가 들은 바로는 공연이 끝나고 임 부장이 김정 연출자와 나눈 대화 내용은 민원글과 다르다.

임 부장이 테이블 옮기지 말라며 소리지른 것을 사과하며, 기획공연 취지에 안 맞아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김정 연출자가 “그러니까 기획공연이라서 돈 줬으니 됐다는 겁니까”라고 얘기해서 임 부장이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 드린 게 아니잖아요.”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이OO 부장이 팝업 공연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담당자가 공연의 기획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고 사과하였고 김정 연출자도 이해하고 사과를 받아들여서 잘 마무리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⁷⁾

(나) 양OO 운영총괄본부장의 진술

양OO 운영총괄본부장은 2015년 11월 6일 예술위 자체 조사에서 ① 2015년 10월 17일 있었던 회의와 관련하여, 일부러 회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소네트>공연 후 관객과의 만남이 모두 끝나고 격려차 문화사업부 사무실에 모두들 모이면서 얘기가 나왔다. 임 부장이 당일 공연에서 카페의 커피 판매가 중단된 것과 손님들이 불편을 느낀 점, 테이블 등 집기가 인위적으로 배치된 것을 문제시하였다. 공연 내용에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도 얘기 들었던 것 같다. ② 공연 내용이 일상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축제분위기를 돋운다는 팝업씨어터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과 공연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 등이 있었고 얘기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공연을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는 발언도 있었지만, 동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으로 기억된다. 결국 다음날 공연은 팝업의 기획취지에 맞게 카페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지장을 주는 일 없이 평소대로 영업하는 상태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연팀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③ 2015년 10월 18일 둘째 날 다른 볼 일이 있어 공연 시작 얼마 전에 카페에 도착, 차를 마시며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 시작하기 직전, 미리 와 있던 중앙 테이블의 일부 손님들과 극단 측이 카페 테이블을 옮기려 하였고 임 부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약간의 언쟁이 벌어졌다. 이내 상황이 수습되고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공연 시간은 20분 정도였고 사고로 죽은 아이들의 엄마 2명이 등장하여 계속 통곡하고 절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④ 10월 18일 둘째날 공연이 끝나고 센터장, 임 부장과 문화사업부에 모인 자리에서 공연 진행 과정과 끝나고 나서 벌어진 상황들에 대하여 임 부장이 설명하였고, 센터장은 OOO가 테이블 공간 배치 등 지시한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은 데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¹⁸⁾

(다) 이OO 부장의 진술

이OO 부장은 2015년 11월 6일 예술위 자체 조사에서 ① 10월 17일 저녁에 문화사업부에 우연히 모였는데, 임 부장이 <이 아이>공연이 원본과 달리 수학여행과 물에 빠져 죽은 것과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은 것이 세월호를 연상케 했으며 우리 축제 취지에 맞지 않게 울며불며 절규하는 내용만 있어 문제라고 했다. ② 다음 날 공연을 중단시키면 공연팀의 항의로 인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카페 영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연을 진행시키되 모두 참석해서 관람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③ 본부장과 함께

17)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유OO), 1쪽. 2015. 11. 12.

18)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양OO), 1-2쪽. 2015. 11. 12.

공연 시작 전에 갔는데, 센터장을 만났고 카페를 원래 영업상태로 유지하면서 공연을 진행시키자는 의견대로 카페 음악은 평소대로 틀어놓고 테이블도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다. 공연 시작 직전에 음악 소리가 줄어들고 배우가 테이블을 옮기려하자 임 부장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3분 가량 언쟁이 벌어졌고, 임 부장이 카페 담당자에게 음악을 누가 줄였냐고 원래대로 진행하자고 지시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다시 임 부장과 연출자 간에 5분 정도 언쟁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민원글에 설명된 것과 같다. 다만, 끝에는 서로 화해하고 잘 헤어졌다. ④ 10월 18일 저녁에는 일찍 퇴근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¹⁹⁾

(라) 임OO 부장의 진술

임OO 부장은 2015년 11월 10일 예술위 자체 조사에서 ① 9월 말 작품 내용을 확정, 결재하기 전에 시놉을 보고받아서 스토리를 알고 있었다. 공연이 임박하면서 000에게 대본 언제 나오냐고 입에 달고 있다시피 요구를 했고, “세월호 내용이지”라고 물었더니 연출자가 그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해서 “뭐든 잘하면 되지”라고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하지는 않았다. 정확히 대사 내용이 원본과 다르게 바뀌었다는 것은 첫날 공연을 보고서 처음 알았다. 뉴시스 인터뷰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 내용은 첫날 공연 이후에 000한테 보고받았는데 인터뷰 중에 이OO 기자가 세월호에 관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연출자가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얘기해줬다. 10월 17일 첫날 공연에서, <이 아이>도 팝업공연으로 얼마든지 잘 승화시킬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연출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표현해내는 형식 자체가 팝업씨어터의 기획 의도와 맞지 않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② 10월 17일 공연 시작 시간에 겨우 도착했다. 보통 공연 시작에 앞서 직원들에게서(000) 어서 오라고 안내 문자를 받는데, 그 날은 아무 공지가 없어서 급한 마음에 달려갔다. 도착해보니 카페 영업은 중단되어 있었고, 테이블은 모서리로 다 밀쳐 전체 공간을 다 벌려놓고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로 공연을 시작하고 있었다. 세월호에 대한 은유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침부터 공연 준비로 음악과 전광판을 다 끄고 종일 영업을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다. 즐겁고 흥겨워야 할 곳이 정지되어 있는 것에 진행형식이 문제라고 생각하여 카운터 옆에 있던 000에게 영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하고 바리스타들에게도 주문을 받으라고 했더니 우리 둘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며 머뭇거렸다. 미리 보고나 협의조차 없었던 상황이라 당황스러워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아 더 이상 강력하게 지시하지 못했고 첫날 공연 내내 그대로 영업을 중단되었다. ③ 10월 17일 밤 회의를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고 5층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센터장, 본부장이 행사를 마치고 직원들도 보고 격려할 겸 사무실로 내려와, 행사에 초청되어 왔던 위원장 손님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OO 부장이 행사협찬 음료를 얻어 마시러 사무실에 들렀다가 합석했다. 공연 때문에 테이블을 모서리로 밀쳐놓고 카페 영업을 중단시킨 것을 팝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 내용도 곡소리, 절규로 우울하고 세월호에 대한 암시가 담겨있다고 문제점을 말했다니 센터장도 지인이 공연보러 갔다가 곡소리만 시끄럽고 커피도 판매하지 않아서 그냥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하지 마시죠, 안하면 안 되나 하는 말도 나오고 위원회가 논란 중에 있으니 공연 내용은 오히

19)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이OO), 1-2쪽. 2015. 11. 12.

려 문제될 게 없다는 말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일단 시작한 공연이니까 어떻게든 되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진행형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취지에 맞게 제대로 카페 영업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연을 하게 하고 모두 같이 가서 공연을 보자고 정했다. 센터장, 본부장이 나가고 000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공연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논의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하실려면 부장님이 직접 하십시오”라고 대답해서 인사도 한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고, 이어서 공연은 하는데 팝업 취지에 맞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테이블, 음악, 전광판, 음료판매는 영업상태로 유지할 것이니까 공연팀과 방법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사무실에 직원들 몇 명이 남아 있었고 전화로 000에게 말한 내용을 그 직원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 ④ 10월 17일에 일단의 손님들이 들어오다가 공연의 소란과 음료 판매 중지를 확인하고 나갔다. 다음 날도 000 직원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는데 많은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공연 때문에 그냥 나갔다고 했다. 센터장에게 제기된 불만은 센터장의 지인이 센터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⑤ 오전에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교육담당자 4인(000, 000, 000, 000)에게 테이블 복구를 지시했고, 000가 바로 알았다, 조치하겠다고 했다. 2시 반에 다른 공연을 모니터링하러 센터장, 직원들과 같이 올라갔는데 테이블이 그대로 있어서 당황했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직원들을 시켜 함께 테이블을 영업 상태대로 옮겨놓았고 센터장이 거들었다. 당시 연출자와 배우들도 그곳에 있었고 000가 연출자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연출자에게 가서 자기소개한 후 팝업공연의 기획 취지를 설명하며 카페 영업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공연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양해를 구했다. 다른 공연을 보러 갔다가 4시 20분에 도착했는데 테이블을 다시 벌려놓은 상태였다. 왜 또 이랬냐며 화가 났는데 000는 없었고 공연시작도 임박하여 그대로 놔두었다. 공연 시작 직전에 배우가 손님들에게 테이블 이동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러 나갔고 그 손님과 30초 남짓 언쟁이 벌어졌다.

임 부장: 아니 이 테이블 안 옮기기로 했는데 뭐하시는 거예요

손님 : 무슨 카페가 테이블도 하나 못 옮겨요. 저 여기 커피도 샀어요.

임 부장: 커피를 샀다고 테이블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손님 : 아니 우리가 괜찮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 와중에도 배우와 손님은 테이블을 끝까지 옮겼다.

공연이 끝나고 연출자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해서 이00 부장이 문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또 언쟁이 벌어졌다.

연출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임부장: 테이블 안 옮기기로 하셨잖아요

연출자: 한두 개 옮기는 건은 된다고 하셨다

임부장: 저는 그런 적 없다. 000 씨가 기획취지와 진행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다.

연출자: 부장님이 책임자시잖아요.

임부장: 맞아요, 그래서 형식을 우리 취지에 맞추려고 한 겁니다. 이거 우리 제작이잖아요.

연출자: 아니 돈받았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임부장: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팝업취지에 안 맞으니까

연출자: 그러면 내용 때문이라는 거네요.

임부장: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연출자: 따로 만나서 나중에 얘기합시다.²⁰⁾

(마) 000 사원의 진술

000 사원은 ① 10월 17일 첫날 공연 리허설 전에 공연팀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카페 공간을 너무 많이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하니까 공연하는 공간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양해하였다. ② 10월 17일 공연이 끝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7~8시 경 센터장과 본부장이 문화사업부로 와서 부장을 찾았다. 저녁식사하러 나간 부장에게 다른 직원이 전화하여 두 분이 오신 사실을 전했고, 좀 있으면 들어간다는 부장의 말을 듣고 나는 바로 퇴근하였다.²¹⁾ 밤²²⁾에 000 직원에게서 카톡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공연을 내리니 마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공연을 못하게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카페 영업을 유지하고 테이블 세팅도 영업 상태로 유지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내일 센터장님이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있을 예정입니다. 공연을 방해할 것 같네요’ 등이다. ③ 000에게 받은 내용을 000에게 다시 전달한 것은, 당연히 팝업씨어터를 담당하는 담당자이기에 이런 공연에 대한 얘기가 오고간 사실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전달했다. ④ 10월 18일 복스테이지 공연에 참여했다가 씨어터 카페에 가보니 센터장과 팀원들이 테이블을 카페 영업상태로 옮겨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²³⁾

(바) 000 사원의 진술

000 사원은 ① <이 아이> 공연의 원작과 실제 공연 내용 중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원본: 캠핑을 갔다온 아이/ 공연: 수학여행 갔다온 아이, ○원본: 하늘색 잠바/공연: 노스페이스이다. 이상한 것은 원작 텍스트와 공연에는 모두 ‘공터에 발견된 아이’로 나오는데 다들 ‘물에 빠진 아이’로 잘못 알고 있다. 이걸 부장이 10.17(토) 공연을 보다가 ‘노스페이스’, ‘수학여행’과 함께 언급한 내용이다. 본부장도 10.28.(수) 저녁식사할 때 ‘물에 빠진 아이’ 말고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한 적 있다. ② 10월 17일 첫날 공연을 하면서 스무디 제조 소음 때문에 카페의 음료 판매를 중지시키고 공연공간 확보를 위해 집기도 이동시키는 등 하였던 것은 작년에 같은 장소에서 공연을 진행할 때 10분 정도 카페에 양해를 구하고 판매를 중지시킨 후 공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부장도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③ 10월 17일 밤 부장이 다음 날 공연을 취소시키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이 늦은 밤에 이것 때문에 센터장, 본부장과 회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내가 어떻게 취소시키냐, 그럴 권한이 없고 하려면 부장이 하시라고 얘기했더니, 공연은 예정대로 하되 팝업씨어터의 취지에 맞게 카페 영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 테이블과 의자를 이동하지 말고 음악도 끄지 말고 모니터와 스크린도 그대로 켜둔 채로 해야 한다면서 연출자에게 통보해주라고 했다. 연출자와 통화가 되지 않아 다음날 오전에 빙자고 문자를 남겼다. ④ 10월 18일 000 직원이 공연 전 점심시간 중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전날 저녁에 센터장, 본부장, 임 부장이 문화사업부 사무실에서 한 회의내용을 얘기해주었고, 000는 000 직원이

20)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임00), 1-4쪽. 2015. 11. 13.

21) 000 사원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밤에 직원들도 모인 회의가 열리기 전에) 10월 17일 저녁 유00 센터장, 양00 본부장, 임00 부장 등이 미리 만난 것으로 보인다.

22) 밤 회의에 참석하였던 000 직원이 회의 도중 000 직원에게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다.

23)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000), 1-2쪽. 2015. 11. 13.

카톡으로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했다. 내용은 공연을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 취소되면 어떡하나, 공연은 다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카페 영업을 유지하면서 테이블 세팅도 그대로 둔 채로 공연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내일 센터장이 카페에 자리를 잡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을 예정이다 등이다. 나중에 000에게 직접 들은 내용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고 다음날 공연에 모두 참석해서 공연을 방해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⑤ 부장이 전화로 취소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회의에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았다. 센터장, 본부장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⑥ 아르코 앞마당의 공연을 준비하다가 오후 1시반 경 김정 연출자를 만나러 아르코 카페에 갔다. 임 부장이 지시한 대로 팝업 공연의 취지에 맞게 카페 영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연을 해야 한다는 것과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을 전달했다. 공연 장소를 다시 보겠다고 해서 함께 씨어터 카페로 이동하였고 배우들과 이야기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다른 공연 준비를 위해 나왔다. 오후 3시 경 김정 연출자와 부장의 전화를 받고 다시 씨어터카페로 갔다. 테이블은 공연 준비 상태로 놓여져 있었는데 센터장, 임 부장, 000 직원 등이 원 위치로 옮겨놓고 있었으며, 연출자와 배우들이 앉아있었다. 임 부장이 연출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공연 제약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담당자가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월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했으며 연출자와 배우들이 항의와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공연 준비를 위해 아르코 앞마당으로 이동했다가 4시 10분 경에 다시 씨어터카페로 가서 대기했는데 4시 20분 경 본부장이 오고 부장들과 센터장도 들어왔다. 공연이 시작되면서 배우들이 관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테이블을 옮기려 하자 임 부장이 소리를 지르며 제지하였고 이후의 상황은 민원글(10.19.)의 내용대로이다. 4시 40분에 공연이 시작되었고 연출자가 문자로 음악 볼륨을 낮춰달라고 요청하여 카운터에 전달하여 낮췄더니 잠시 후 임 부장이 와서 다시 높였다. 5시 경 공연이 끝나고 연출자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고 다음 공연을 위해 북스테이지로 이동했다.²⁴⁾

(사) 000 사원의 진술

000 사원은 10월 17일 저녁에 센터장, 본부장, 부장들이 사무실에 모여 얘기할 때 정수기 물뜨러 가다가 옆에서 들은 대화 내용은 “돈은 주고 공연을 그만두게 하면 안 되나”, “문제되는 단어를 빼고 하면 안 되나” 였다고 진술하였다.²⁵⁾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참고인 이00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무대예술부장 이00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10.17. <이 아이> 첫공연이 끝난 후 공연예술센터 직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다음 날(10.18) 공연을 취소와 관련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회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 사무실이 바로 옆 사무실 이어서 왔다갔다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회의가 있었는지, 참석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공연 취소’를 언급하였는지는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⁶⁾

24)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000), 1-4쪽. 2015. 11. 12.

25) 000 사원의 진술에서도 10월 17일 (밤 회의 전) 센터장, 본부장, 부장 등이 미리 만나서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000), 1쪽. 2015. 11. 12.

(2) 참고인 강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경영인사부장 강OO는 2015년 11월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조사를 담당하였던 직원인데 위원회 조사에서, (1) 2015.10.17. <이 아이> 첫공연이 끝나고 난 후 열린 '대책회의'와 관련하여,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였고, (2) 보고서 3쪽에서 '공연은 방해 받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됨. 그리고 주최 측이 공연을 방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저는 당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조사자로서 예술위가 의도적으로 공연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라고 하였고, (3) OOO 직원의 카톡으로 보아서 17일 회의에서는 다음 날 공연을 내리니 마니 논의를 하다가 결국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 대신 공연을 방해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결론이 어떻게 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4) 조사자로서 보기에 임OO 부장은 OOO 직원에게 공연 취소를 지시하였다고 보았다고 하였고, (5) 2015.10.18. 공연 직전 테이블을 두고 공연 팀과 예술위 간부들 사이에서 있었던 실갱이는 예술위가 합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보기에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고, (6) OOO 직원이 '카페의 영업을 평소대로 유지하라'는 임OO 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연 담당 직원으로서 최대한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OOO 씨의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의 영업을 평소대로 유지하고자 한 것 자체가 공연을 방해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고, (7) 이 조사 보고서에는 2015.10.18. 공연 시작 직후 임OO 부장이 공연을 중단시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공연 시작 직후 공연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라고 하였고, (8)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하여서 "예술위가 공연단체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키지도 않았던 공연방해를 하였고 그 책임을 가장 지위가 낮은 말단 직원에게 전가하고 또 은폐하려고 했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⁷⁾

(3)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기획조정부장 김OO은 <이 아이> 공연방해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인 '팝업씨어터 관련 조사 보고'를 작성한 직원인데, 위원회 조사에서 (1) '팝업씨어터 관련 조사 보고'는 강OO 부장이 조사한 9인의 진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고, (2) 2015. 10. 17. <이 아이> 첫공연이 끝나고 난 후 '대책회의'가 열렸는지와 관련해서는 "'이 아이' 공연과 관련된 대책만 논의한 자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아이> 공연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였고, (3) OOO 씨 등의 진술로 보아서 3명(유OO, 양OO, 임OO)이 (농담이든 진담이든) 공연을 취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4) 공연 영상을 보면 양OO, 임OO 부장 등이 관객과 배우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하면서, 당시에 공연 영상을 보지 못하고 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공연 영상을 보니 실제 진행된 공연도 방해를 받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26) 이OO 2회 진술조서, 5-6쪽. 2018. 1. 19.

27) 강OO 1회 진술조서, 3-5쪽. 2018. 1. 25.

진술하였고, (5) 임OO 부장이 000 직원에게 공연 취소를 지시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취소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임OO 부장이 부장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하급 직원에게 물어본 것 자체가 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취소 지시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루 공연이 끝나고 마지막 공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연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담당 직원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고, (6) 2015.10.18.공연 직전 테이블을 두고 공연 팀과 예술위 간부들 사이에서 있었던 실갱이는 예술위가 합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 인지와 관련해서는, “당시 직위를 감안했을 때 센터장이나 본부장, 담당 부장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고, (7) 추가 조사를 더 진행하거나 감사를 요청하지 않고, 서둘러 공연 방해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던 까닭에 대하여는, “박명진 위원장도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정감사에서 예술검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술위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예술위 직원들이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를 하였다고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하였어야 하겠지만, 서둘러 공연 방해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 결국, 당시 공연을 방해 받았던 <이 아이> 공연팀이나 담당 000 직원, 그리고 이후 공연하기로 하였다가 공연을 포기한 윤혜숙, 송정안 두 연출가에게 큰 상처를 드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죄송하고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술위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⁸⁾

(4) 참고인 김원정의 진술

참고인 김원정 배우는 <이 아이> 공연에 참여하였던 배우인데 위원회 조사에서 “2015.10.18. 공연 2시간 전에 제가 카페 씨어터에 도착하여 보니 유OO 센터장이 전날 공연 때 공연을 위해서 배치되었던 테이블 등 위치를 직원들과 함께 직접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페 운영을 평상시대로 하겠다고 연출에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씨어터 카페에 원래 테이블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저 공연을 방해하기 위해서 테이블 위치를 옮기고 있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²⁹⁾

(5) 참고인 임영준의 진술

참고인 임영준 배우는 <이 아이> 공연에 참여하였던 배우인데 위원회 조사에서 “공연이 시작되면서 제가 무대로 입장을 했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고 연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옮기려고 하자 갑자기 임OO 부장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식이면 공연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공연 진행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관객 중에서 여러 명이 임OO 부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카페 이용객이 왜 테이블을 못 옮기냐 항의하자, 임OO 부장은 커피를 샀다고 해서 테이블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등 실랑이가 몇 분 정도 계속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³⁰⁾

28) 김OO 1회 진술조서, 2-5쪽. 2018. 2. 6.

29) 김정 외 3인 1회 진술조서, 3쪽. 2018. 2. 10.

30) 김정 외 3인 1회 진술조서, 3-4쪽. 2018. 2. 10.

(6) 신청인 김정의 진술

신청인 김정은 <이 아이> 연출가인데 위원회 조사에서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임OO 부장에게 ‘그러면 테이블 사용을 하지 않고 공연을 하겠다. 무대에서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카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원정, 황순미 두 배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테이블을 움직이지 못하고 맨바닥에서 공연을 해야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테이블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극중 죽은 아이가 올려져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만 진정하고 있다가 공연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³¹⁾

(7) 참고인 황순미의 진술

참고인 황순미는 <이 아이> 공연에 출연하였던 배우인데 위원회 조사에서 “테이블이 없이 연기를 해야한다는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연극을 보러 온 관객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에 있는데 그러한 관객 앞에서 제가 연기를 해야한다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소품 테이블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연기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객들과 어떻게 시선을 교감하면서 연기를 해야하는 것인지 난감했습니다. 게다가 카페 음악까지 크게 들렸고, 문도 열어두어서 외부 소음도 심했습니다. 관객에게 제대로 대사가 전달될 수 있을까 싶은 걱정에 무척 큰 소리로 대사를 쳤지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³²⁾

(8) 참고인 임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문화사업부장 임OO은 위원회 조사에서 (가) 예술위 강OO 경영인사부장이 작성한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에 있는 본인 진술 내용은 사실 그대로라고 하고, (나) 10월 17일 공연이 끝난 후 <이 아이> 다음 날 공연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한 것은 맞다고 하고, (다) 공연을 취소하자는 등의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팝업씨어터의 취지에 맞게 카페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결정을 하였고, (라)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공연을 방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마) 카페영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이 아이> 공연팀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바) 공연이 끝난 후 영상을 받아본 후에야 비로소 명확하게 자신이 공연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 공연 시작 직전 혹은 공연 시작 직후 공연을 중단시킨 것은 예술위 제작 공연이기 때문에 장내 정리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고, (아) 자신이 일어나서 관객과 논쟁을 한 시점부터 배우들의 표정을 보고서야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끄러움을 느꼈고, (자) 공연 방해와 관련하여 박명진 위원장의 지시는 없었고, (차) 10월 17일 회의에서 공연을 취소하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이 개인적으로 OOO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공연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카) OOO 직원에게 공연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것은 만약 카페를 (공연을 위해

31) 김정 외 3인 1회 진술조서, 4쪽, 2018. 2. 10.

32) 김정 외 3인 1회 진술조서,

서 이동된 테이블 등) 원상 복귀 시킬 경우 단체가 반발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었지만 그때까지도 공연 진행에 방해가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타) 10월 17일 공연이 끝난 후 유OO 공연예술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연 대사 중에 ‘수학여행’, ‘노스페이스’ 등이 나온다는 보고를 하였고, (파) 그날 저녁 회의가 열리기 전 이OO 경영총괄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아이> 공연에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자 이OO 본부장은 ‘그 얘기를 왜 내게 하느냐’고 하면서 ‘유OO 센터장이 책임지게 하라’고 하였고, (하) 그날 밤 있었던 회의에서 카페 테이블 등을 원상 복귀하고 정상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공연을하기로 결정을 하고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태에서 20분짜리 짧은 공연이 빨리 지나가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카페 테이블 배치를 못 움직이게 하거나 하는 결정은 공연 취지에 따른 것이었지만 자신의 무리한 행동이 결국 공연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다고 하면서, 2015년 10월 17일~18일 당시에는 국정감사에서 예술위가 검열 논란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문체부에서 국제공연예술제를 예술위에서 없애거나 이관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OO 센터장이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³⁾

(9) 참고인 이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경영전략본부장 이OO은 위원회 조사에서 (가) 2015년 10월 17일 팝업씨어터 첫째 날 공연이 끝나고 임OO 문화사업부장이 전화를 하여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고 하기에, <이 아이> 공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느냐. 센터장이랑 알아서 협의해라.’라고 말했고, (나)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내용을 박명진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유OO 센터장과 얘기한 바 없고, (다) 예술위가 공연을 방해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³⁴⁾

4. 후속 작품에 대한 대본제출 요구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의도였는지에 대하여

가. 문건 등 자료조사

(1) 팝업씨어터 담당자분께[이메일(윤혜숙→OOO): 2015. 10. 21. 13:39.]

윤혜숙 연출은 2015. 10. 21. 예술위 담당직원 OOO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가) 10월 17일 <이 아이> 공연을 보러 갔는데 공연을 좋게 보았을 뿐 카페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은 없었고, (나) 10월 20일에 팝업씨어터 담당자를 만났는데 <이 아이> 공연이 씨어터카페에서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었다고 하면서 윤혜숙 연출의 <후시거나 포켓포> 공연도 씨어터카페에서 진행할 수 없으며, 대안으로 북스테이지에서는 공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연 대본을 요청하여서 대본을 주었고, (다) 컴플레인이 있으면 주최측이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관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공연팀에 공

33) 임OO 1회 진술조서, 5-8쪽. 2018. 4. 3.

34) 이OO 2회 진술조서, 4-5쪽. 2018. 4. 11.

연공간 변경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며, (라)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해결방안을 촉구한다고 하였다.³⁵⁾

(2) 문화사업부장 임OO과 통화 녹취록[통화일시 2015. 10. 21. 오후 3시경]

윤혜숙 연출이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서 대본 제출 요구와 관련된 부분 중 주요한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출가: 대본은 왜 보여달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사업부장: 대본은 제가 애초에 팝업을 기획할 때부터 담당자한테 받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작품하고 연출가하고 같이 그 기획의도에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받았어야 하는 것인데, 받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번에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받으라고 다시 확인을 한 것뿐이다. 이번에 그래서 대본을 달라고 한 게 아니다.

연출가: 뭔가 시기적으로 공교로운 게 있어서. <이 아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대본을 달라고 하시니.

문화사업부장: 공연 대본을 당연히 처음부터 요청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안 갖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3) 연출 윤혜숙입니다[이메일(윤혜숙→OOO): 2015. 10. 21. 19:09.]

윤혜숙 연출은 같은 날 오후 7시 경 다시 한 번 예술위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21일 서면을 통해서 절차상 발생한 문제들과 부당함에 대해 말한 후 같은 날 문화사업부장으로 부터 해명 전화를 받고 17일 <이 아이> 공연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그로 인해 발생한 공간 변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면서 <후시거나 포켓또> 공연을 예정대로 24, 25일 씨어터카페 스크린 앞에서 공연하겠다고 하고 몇 가지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였다.³⁶⁾

(4) <후시거나 포켓또> 리허설 및 공연 필요물품 요청[이메일(윤혜숙→OOO) : 2015. 10. 22. 16:48.]

윤혜숙 연출은 2015. 10. 22. 예술위 담당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리허설 및 공연 때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였다.

(5) 윤혜숙입니다[이메일(윤혜숙→OOO): 2015. 10. 23. 04:26.]

윤혜숙 연출은 2015. 10. 23. 예술위 담당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후시거나 포켓또> 공연을 팝업씨어터 참가작으로서 씨어터카페에서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지난 10월 20일³⁷⁾ 공연장 변경 통보와 대본 제출 요청을 받은 이후 마음이 어려웠다고 하면서, 팝업씨어터 참여팀으로서 지난 공연이 주최측에 의해서 제대로 공연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 깊이 남아 있었고 공연 당일 주최 측에게 어떤 제지를 당할지 불안함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최 측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였다.³⁸⁾

35) 팝업씨어터 담당자분께[이메일(윤혜숙→OOO): 2015. 10. 21. 13:39.]

36) 연출 윤혜숙입니다[이메일(윤혜숙→OOO): 2015. 10. 21. 19:09.]

37) 원문에는 9월 20일로 되어 있으나, 이는 10월 20일의 오키로 보인다.

(6) 예술위 직원 000 작성 진술서

예술위 팝업씨어터 담당 직원 000가 작성하여 박명진 위원장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 문서 중에서 대본제출요구와 관련된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³⁹⁾

(10월 18일) 7시 10분 경. 부장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하고, 읽지 못하는 것을 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았으나 **문화사업부장으로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제스처를 취해야했기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중략) 저는 세월호 얘기를 왜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몇 차례 이러한 문제들을 겪어오면서 분노도 하고 슬픔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장님이 그런 입장을 밝혔으니 직원들을 따라야하고, 앞으로 SPAF 이관, 부서 조직 개편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략) **제가 다음 주 팝업씨어터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보았습니다. 우선 남은 연극팀들의 대본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대본을 보고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10월 19일 8시 46분 경. 대본 요청을 위해 윤혜숙, 송정안 연출님들께 만나 뵙자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오전 11시 경. 문화사업부장님께서 대본을 받았냐며 확인하셨고, 저는 아직 못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월 20일. 12시 20분. 10월 24-25일 공연할 송정안 연출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송정안 연출님의 대본을 보지는 못했지만, 문화사업부장님께서 대본을 보신다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공연을 취소시킬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솔직한 내용을 감출수가 없었고 세월호 내용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는 제 추측을 말씀드렸습니다. (중략) 송정안 연출님께서는 우선 대본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5시 25분 윤혜숙 연출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대본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윤혜숙 연출님 역시 당황해 하였고, 저는 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은 팝업씨어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관객컴플레인 주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송정안 연출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내용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는 제 추측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윤혜숙 연출님도 대본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0월 21일(수) 1시 39분 경, 윤혜숙 연출님의 장소 변경 및 대본 요청에 대한 항의글이 왔고, 임OO 부장님께서 사과하시며 윤혜숙 연출과 직접 통화하셨습니다.

10월 22일(목) 송정안 연출님, 윤혜숙 연출님의 대본을 문화사업부장님과 함께 훑어보았습니다. **염려하실만한 부분들(송정안 연출님 대본 속 '파란집 공주님' 등)을 제가 부장님께 언급했고, 부장님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10월 23일(금) 출근하고 나니, 윤혜숙 연출님과 송정안 연출님의 공연 포기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오후에 본부장님이 절 찾으셨고, 저는 위의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본을 보기 원하셨고 함께 보았습니다. 염려하실만한 부분들 역시 말씀드렸더니, 본부장님께서 공연을 안 하길 잘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38) 윤혜숙입니다[이메일(윤혜숙→000): 2015. 10. 23. 04:26.]

39) 예술위 직원 000 작성 진술서 사본. 재판기록.

(7) 팝업씨어터 민원관계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 유OO 공연예술센터장의 진술

유OO 공연예술센터장은 예술위 자체 조사에서 <이 아이> 후속 팝업씨어터 2개 작품에 대하여 대본 제출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남은 공연들에 대해서는 팝업이라는 기획취지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임 부장에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⁰⁾

(나) 임OO 문화사업부장의 진술

임OO 문화사업부장은 예술위 자체 조사에서 두 연출가들에 대한 대본 제출 요구는 이미 공연하기로 확정된 이후부터 요구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¹⁾

(다) 양OO 운영총괄본부장의 진술

양OO 운영총괄본부장은 예술위 자체 조사에서 팝업씨어터는 센터의 기획공연으로 당연히 대본을 미리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 부장이 수차례 대본을 받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했으나 번역 작품인 <이 아이> 외에 두 작품은 창작품으로 대본 제출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²⁾

나. 참고인 등 대인조사

(1) 참고인 김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기획조정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아이> 공연이 논란이 된 이후 윤혜숙, 송정안 두 연출가의 작품에 대해서 대본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³⁾

(2) 참고인 양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양OO 공연예술센터 운영총괄본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윤혜숙·송정안 두 연출가의 공연 대본 제출을 요구한 것은 두 연출가의 대본에서도 <이 아이>처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⁴⁾

(3) 참고인 임OO의 진술

참고인 예술위 문화사업부장 임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윤혜숙, 송정안 두 연출에게 대본

40)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유OO), 2쪽. 2015. 11. 12.

41)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임OO), 5쪽. 2015. 11. 13.

42)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양OO), 2쪽. 2015. 11. 12.

43) 000 1회 진술조서, 4쪽. 2018. 2. 6.

44) 양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3. 23.

제출을 요구한 데에는 사전에 검열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점에서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⁴⁵⁾

2. 조사 결과

1. 진상규명 사실

<공원은공연중> 팝업씨어터 사업 참가자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이 있었는지 여부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공원은공연중> 10월 프로그램 팝업씨어터 참여 연출가 선정과정에서 문체부의 배제 지시가 있었으나 배제 조치가 있기 전 전진모 연출가 스스로 참여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OO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현재’ 문서에서 2015년 9월 16일 경 <공원은공연중> 사업에서 연출가 전진모를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⁴⁶⁾ 예술위 문화사업부장 임OO이 담당 직원에게 전진모 연출이 성기웅 연출의 조연출이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말하고 배제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⁴⁷⁾ 전진모 연출가가 팝업씨어터 공연 참가 제안을 받고 고민하다가 일정 문제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을 먼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⁴⁸⁾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받은 예술위가 전진모 연출가를 배제하기 전에 전진모 연출가 스스로 일정상의 문제로 공연 거절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내용 때문이었는지 여부

가.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키자 대책회의를 하고 공연방해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다음의 사실을 통하여 10월 17일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키자 예술위 문화사업부장 임OO, 공연예술센터장 유OO, 운영총괄본부장 양OO 등이 다음 날 공연을 방해하기로 하고 10월 18일 공연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 임OO 문화사업부장이 10월 17일 <이 아이> 첫째 날 공연이 끝난 후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 사이에 유OO 공연예술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연 대사 중에 ‘수학여행’, ‘노스페이스’ 등이 나온다고 하였고, 이OO 경영전략본부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고 하였더니 ‘유OO 센터장이 책임지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⁴⁹⁾ 000 사원의 진술에 따르면 7~8시 경 센터장과 본부장이 임OO 부장을 찾아와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 점,⁵⁰⁾ 000 사원이 10월 17일 저녁에 정수기에 물을 뜨러 갔다가 센터장, 본부장, 부장들이 사무실에 모여 얘기할 때 들은 대화 내용 중에 “돈

45) 임OO 1회 진술조서, 8쪽. 2018. 4. 3.

46) 문체부 작성, ‘리스트-’16.2.1.현재’, 25쪽.

47) 임OO 1회 진술조서, 4-5쪽. 2018.

48) 전진모 전화면담조사, 1쪽. 2018. 4. 11.

49) 임OO 1회 진술조서, 7-8쪽. 2018. 4. 3.

50)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000), 2쪽. 2015. 11. 13.

은 주고 공연을 그만두게 하면 안 되냐”, “문제되는 단어를 빼고 하면 안 되냐”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¹⁾ 등의 진술에 따르면 10월 17일 밤 회의가 있기 전 임OO 부장, 유OO 센터장, 양OO 본부장 3인이 <이 아이> 둘째 날 공연에 대한 대책을 밤 회의 전에 논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2) 유OO 공연예술센터장이 2015년 10월 17일 당일 전체 행사 종료 후 문화사업부 사무실에서 양OO 본부장, 이OO 부장, 임OO 부장과 직원 몇 명과 함께 공연 진행상황 등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임 부장이 <이 아이> 공연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작품이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둘째 날 공연에 대하여 ‘그만 두게 하면 안 되냐’ 등의 의견 제시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²⁾ 양OO 운영총괄본부장이 10월 17일 회의에서 임 부장이 공연 내용에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하였던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한 참석자가 공연을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는 발언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³⁾ 이OO 무대예술부장이 10월 17일 회의에서 임OO 부장이 <이 아이>공연이 원본과 달리 수학여행과 물에 빠져 죽은 것과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은 것이 세월호를 연상케 했으며 우리 축제 취지에 맞지 않게 울며불며 절규하는 내용만 있어 문제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⁴⁾ 임OO 부장이 10월 17일 밤 회의에서 공연 내용이 곡소리, 절규로 우울하고 세월호에 대한 암시가 담겨있다고 문제점을 말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하지 마시죠, 안하면 안 되냐 하는 말도 나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⁵⁾ OOO 사원이 10월 17일 밤 OOO 직원에게 받은 카톡 내용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공연을 내리니 마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공연을 못하게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카페 영업을 유지하고 테이블 세팅도 영업 상태로 유지해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내일 센터장님이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있을 예정입니다. 공연을 방해할 것 같네요’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⁶⁾ OOO 사원이 10월 17일 밤 임OO 부장이 다음 날 공연을 취소시키라고 하면서 센터장, 본부장과 회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중에 OOO 직원에게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고 다음날 공연에 모두 참석해서 공연을 방해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자고 했다’고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⁷⁾ 팝업씨어터 조사를 담당하였던 예술위 강OO 부장이 자신이 조사한 바로는 2015. 10. 17. <이 아이> 첫 공연이 끝나고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당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예술위가 의도적으로 공연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고, 임OO 부장이 OOO 직원에게 공연 취소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카페의 영업을 평소대로 유지하고자 한 것 자체가 공연을 방해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⁵⁸⁾ ‘팝업씨어터 관련 조사 보고’를 작성하였던 강OO 경영인사부장이 2015. 10. 17. <이 아이> 첫 공연이 끝나고 난 후 예술위 직원들이 <이 아이> 공연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공연을 취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⁵⁹⁾ 임OO 문화사업부장이 10월 17일 밤 회의에서 씨어터카페를 정상 영업

51)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OOO), 1쪽. 2015. 11. 12.

52)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유OO), 1쪽. 2015. 11. 12.

53)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양OO), 1-2쪽. 2015. 11. 12.

54)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이OO), 1-2쪽. 2015. 11. 12.

55)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임OO), 1-4쪽. 2015. 11. 13.

56)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OOO), 1-2쪽. 2015. 11. 13.

57) 예술위 작성,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OOO), 1-4쪽. 2015. 11. 12.

58) 강OO 1회 진술조서, 3-5쪽. 2018. 1. 25.

상태로 원상 복귀 시키라는 유OO 센터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⁶⁰⁾ 이OO 경영전략본부장이 예술위가 공연을 방해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⁶¹⁾ 유OO 센터장 등이 2015.10.18. 공연 2시간 전날 공연 때 공연을 위해서 배치되었던 테이블 등을 평상시대로 하겠다고 하였지만 씨어터 카페에 원래 테이블이 위치 조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공연을 방해하기 위해서 테이블 위치를 옮기고 있었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원정 배우의 진술⁶²⁾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OO 센터장, 양OO 본부장, 임OO 문화사업부장 등은 10월 17일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를 연상시키자 대책회의를 통하여 다음 날 공연을 취소시킬지 여부를 논의하였고 결국 팝업씨어터 공연의 취지에 맞게 공연을 진행해야 하니 카페 테이블도 못 움직이고 음악 소리도 줄일 수 없다고 하는 등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0월 18일 <이 아이> 둘째 날 공연 진행을 방해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 임OO 문화사업부장은 공연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예술위 제작 공연이라 장내 정리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고 있지만,⁶³⁾ 관객의 민원글에서 ‘4:30이 되어 검은 옷을 입은 분⁶⁴⁾이 나오셔서 책상을 옮겨 달라고 하면서 연극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한쪽에 직원 신분증 같은 걸 걸고 한동안 앉아 계셨던 여자분⁶⁵⁾이 갑자기 책상을 옮기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점,⁶⁶⁾ <이 아이>에서 처음 등장하는 배우였던 임영준이 “공연이 시작되면서 제가 무대로 입장을 했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고 연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옮기려고 하자 갑자기 임OO 부장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⁶⁷⁾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임OO 문화사업부장이 공연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임영준 배우와 황OO 관객은 공연이 시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임OO 문화사업부장이 <이 아이> 공연 시작 직후 공연을 중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임OO 문화사업부장이 일어나서 관객과 논쟁을 한 시점에서부터 배우들의 표정을 보고서야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고 있는 점,⁶⁸⁾ 임영준 배우가 관객들 중 누가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인지, 누가 공연을 방해하는 직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마치 발가벗겨진 것 같은 모멸감을 느끼면서 연기를 해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⁶⁹⁾ 김원정 배우도 공연이 시작된 상황에서 공연을 의뢰하였던 주최 측이 공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자신이 잘못된 공연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⁷⁰⁾ 황순미 배우가 지인들이 보러온 공연을 방해한 임OO 부장이 관객 앞에서 소리까지 지르고 관객들과 말다툼까지 벌였다는 데 충격을 받았고, 지인들에게 하찮은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⁷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임OO 문화사업부장이 공연 진행

59) OOO 1회 진술조서, 2-5쪽. 2018. 2. 6.

60) 임OO 1회 진술조서, 5-8쪽. 2018. 4. 3.

61) 이OO 2회 진술조서, 4-5쪽. 2018. 4. 11.

62) 김정 외 3인 진술조서, 3쪽. 2018. 2. 10.

63) 임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4. 3.

64) <이 아이> 공연에서 처음 등장하는 배우인 김영준이다.

65) 임OO 문화사업부장이다.

66) 황OO, 주최측의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 1쪽. 2015. 10. 19. 예술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객 민원글.

67) 김정 외 3인 1회 진술조서, 3쪽. 2018.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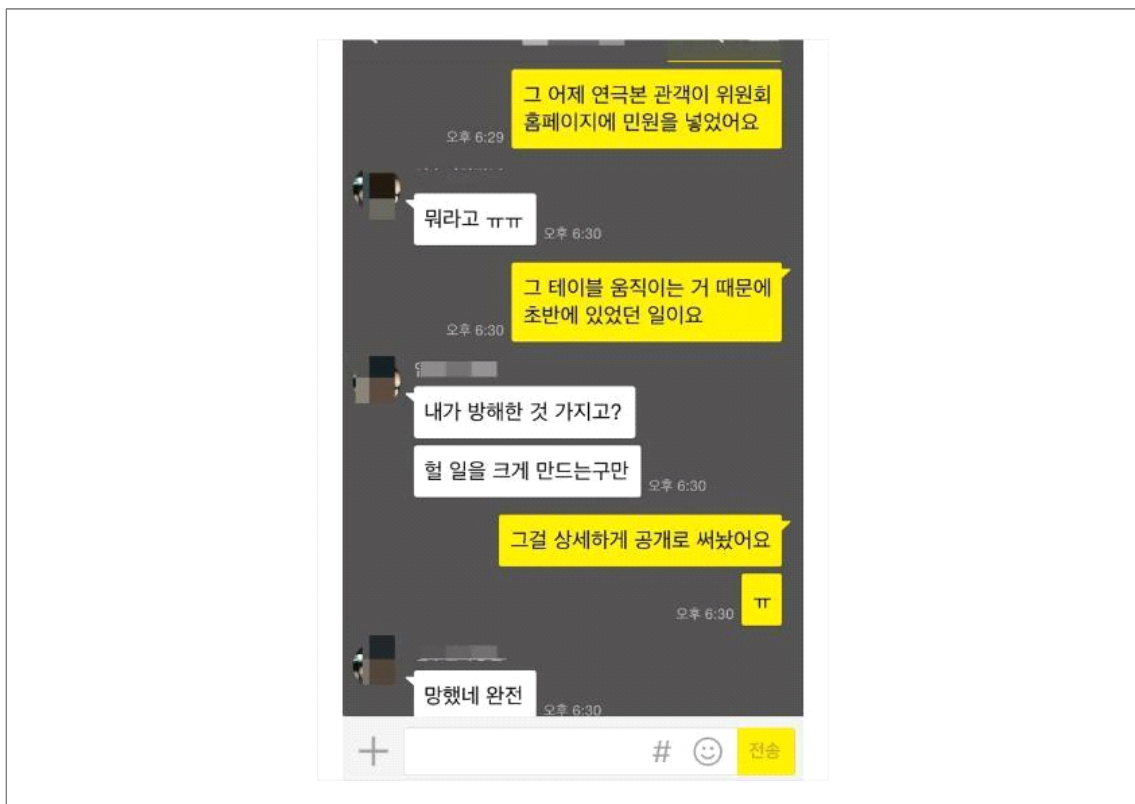
68) 임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4. 3.

69) 김정 외 3인 진술조서, 5쪽. 2018. 2. 10.

70) 김정 외 3인 진술조서, 5쪽. 2018. 2. 10.

71) 김정 외 3인 진술조서, 6쪽. 2018. 2. 10.

을 중단시킨 것이 심각한 공연 방해 행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5) ‘팝업씨어터 관련 조사 보고’를 작성한 김OO 기획조정부장이 실제 진행된 공연도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⁷²⁾ 사건 당시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였던 강OO 경영인사부장이 조사자로서 예술위가 의도적으로 공연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⁷³⁾ 임OO 문화사업부장이 공연이 끝난 후 영상을 받아본 이후 자신이 공연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⁷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실제 진행된 공연도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연이 끝난 후 고객이 예술위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다는 보고를 받은 임OO 부장이 담당 직원 000에게 보낸 카톡에서도 확인된다.⁷⁵⁾ 임OO 문화사업부장은 스스로 ‘내가 방해한 것 가지고?’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10월 17일 공연 사진(<사진 1>)에 비하여, 10월 18일 공연 사진(<사진 2>)에서는 배우와 관객 사이에 커다란 테이블을 두고 예술위 직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⁷⁶⁾ 10월 17일 공연에서는 꺼져 있던 광고판이 10월 18일 공연에서는 켜져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 음악 소리 등도 그대로 들리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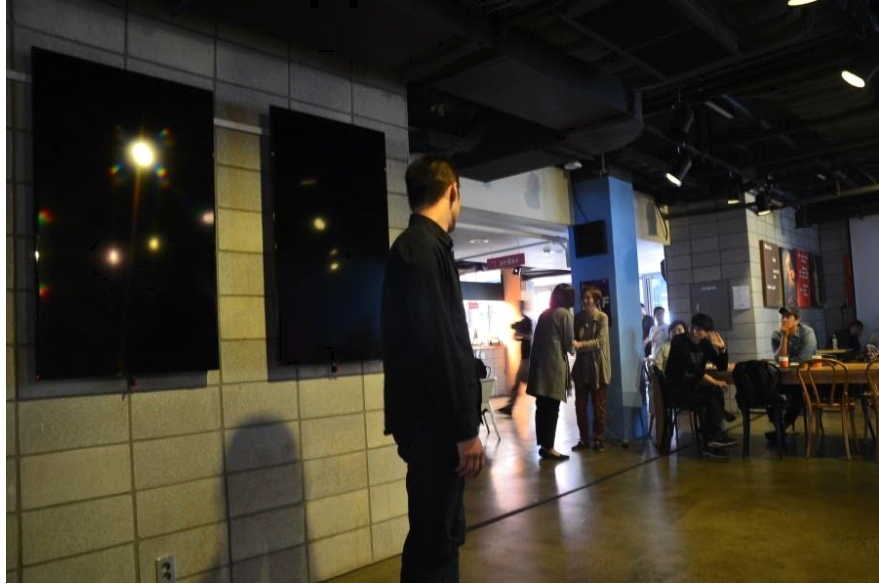
72) 000 1회 진술조서, 4쪽. 2018. 2. 6.

73) 강OO 1회 진술조서, 3쪽. 2018. 1. 25.

74) 임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4. 3.

75) 노컷뉴스, “수학여행이 왜 나와? 이거 세월호 이야기 아냐?”, 2015. 11. 5.

76) 아래 사진에서 배우와 관객 사이에 놓인 커다란 테이블에서 왼쪽에 앉아 있는 남성이 양OO 운영총괄본부장, 오른쪽에 앉아 있는 여성이 임OO 문화사업부장이다.



〈사진 1〉



〈사진 2〉

3. 후속 작품에 대한 대본제출 요구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의도였는지 여부

다음을 통하여 예술위가 팝업씨어터 후속 작품에 대한 대본 제출을 요구한 것이 대본 내용 중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대본 제출을 요구받은 윤혜숙 연출이 공연장 변경 통보와 대본 제출 요청을 받은 이후 마음이 어려웠다고 하면서, 주최 측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⁷⁷⁾ 예술위 문화사업부장 임OO은 위원회 조사에서 윤혜숙, 송정안 두 연출에게 대본 제출을 요구한 데에는 사전에 검열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그 시점에서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⁷⁸⁾ 양OO 공연예술센터 운영총괄본부장이 위원회 조사에서 윤혜숙·송정안 두 연출가의 공연 대본 제출을 요구한 것은 두 연출가의 대본에서도 <이 아이>처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⁷⁹⁾ 예술위 담당 직원 000가 박명진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던 자술서 중에서 임OO 부장이 남은 연극팀들의 대본을 받아 보고 공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면서 임OO 부장이 송정안 연출의 공연을 취소시킬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고, 두 연출가에게 대본 제출을 요구하면서 센터 공식입장은 관객 컴플레인 등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세월호 내용이 문제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⁸⁰⁾ 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예술위가 윤혜숙·송정안 두 연출가의 대본에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려는 의도를 포함하여 대본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77) 윤혜숙입니다[이메일(윤혜숙→OOO): 2015. 10. 23. 04:26.]

78) 임OO 1회 진술조서, 8쪽. 2018. 4. 3.

79) 양OO 1회 진술조서, 6쪽. 2018. 3. 23.

80) 예술위 직원 000 작성 진술서 사본. 재판기록.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있었던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 및 이후 공연 예정이었던 <후시거나 포켓또>, <불신의 힘> 공연 대본 검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과드립니다.

예술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참담한 과오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팝업씨어터’ 피해자들은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 인정과 책임 인정이 담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예술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예술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두 달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 사과문의 내용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작성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예술기관으로 동법 제1조(목적),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등에 의거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여 한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예술위원회는 지난 정부 하 소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전달된 예술인 배제 및 사전검열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해당 예술인 및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조직의 본분과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이는 다시는 자행되어서는 안 될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팝업씨어터’ 사태는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가 예술위원회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이행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당 지시하여 예술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체 검열 사례입니다.

당초 ‘팝업씨어터’는 예술위원회 주최, 주관의 기획 사업 <공원은공연중>의 프로그램으로 극장 로비, 카페,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돌발적으로 펼쳐지는 팝업 형태의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17일(토)~18일(일), 24일(토)~25일(일) 아르코예술극장 로비, 앞마당,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 북스테이지 등에서 예정되었습니다. 연극 작품으로는 <이 아이> (김정 연출, 2015.10.17.~10.18., 씨어터카페), <후시거나 포켓또>(윤혜숙 연출, 2015.10.24.~10.25., 씨어터카페), <불신의 힘>(송정안 연출, 2015.10.24.~10.25.,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팝업씨어터’는 2015년 9월 참여 예술가 섭외 과정부터 블랙리스트가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섭외 예정이었던 예술가들의 출생년도와 명단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 제출하여 청와대 등에서 블랙리스트 여부에 대한 신원검증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섭외 대상이었던 전진모 연출가에 대해 문체부로부터 배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17일, ‘팝업씨어터’참가작인 김정 연출의 〈이 아이〉가 씨어터카페에서 공연되었습니다. 동 공연을 관람한 문화사업부장은 ‘세월호를 연상시킨다’고 예술위원회 경영전략본부장, 공연예술센터장 등에게 보고 했고, 이에 당일 밤 공연예술센터장, 운영총괄본부장, 문화사업부장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익일 공연의 취소 여부를 논의하였고, 결국 공연을 위해 준비한 카페 테이블 및 의자 배치, 음악 소리 크기 조정 등이 ‘팝업씨어터’공연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카페 영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10월 18일 〈이 아이〉 둘째 날 공연 진행을 방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문화사업부장은 ‘팝업씨어터’담당자 김진이에게 〈이 아이〉‘공연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담당자가 공연 취소 지시를 거부하자, 문화사업부장은 카페 테이블 및 의자 이동 불가, 음악 중지 불가, 카페 영업 중단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상기 언급의 실례로 2015년 10월 18일 〈이 아이〉 공연 시작 전, 문화사업부장은 〈이 아이〉 공연팀에게 직접 카페 테이블 및 의자 이동 불가, 음악 중지 불가, 카페 영업 중단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예술센터장과 문화사업부장 등의 지시로 예술위원회 직원들은 배우 동선을 따라 배치된 씨어터카페 내 테이블을 모두 카페 영업을 위한 상태로 재정리하였습니다. 한편 공연 시작 직후 임영준 배우가 동선 확보를 위해 관객에게 테이블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문화사업부장이 이를 저지하며 공연을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공연 재개 이후에도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상기 사태 이후, 차기 공연 예정이었던 〈불신의 힘〉과 〈후시거나 포켓또〉의 공연 대본에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는 의도를 포함하여 대본 제출과 함께, 〈후시거나 포켓또〉의 공연장소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윤혜숙, 송정안 연출을 비롯한 공연팀의 항의와 공연 보이콧 선언 등 공연을 취소하도록 만드는 동인을 제공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두 공연이 취소되고 〈이 아이〉 공연 방해 및 〈후시거나 포켓또〉와 〈불신의 힘〉의 대본 검열 논쟁이 공론화되자,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사건의 사실 관계와 다른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내부조사(2015.11.11.~11.13.)를 시행하였으나, 예술위원회 조직을 방어하고자 “공연방해 없었다”는 “조사결과 보고(2015.12.31.)”를 작성했습니다. 공익제보를 통해 이 사태를 세상에 알린 김진이 사업 담당자에게는 정기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자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팝업씨어터’와 관련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겹쳐히 받아들입니다. 2015년 당시 문체부는 세월호와 관련된 공연 등 문화예술에 대한 배제를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요 방침으로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팝업씨어터’사태는 예술위원회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실행하던 중,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며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술위원회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에서 공연 방해 사

실을 밝히지 않았고 도리어 ‘공연 방해는 없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팝업씨어터’ 사태 공론화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술가들의 수차례 항의와 시위가 진행되었고 진상조사 결과(2018.05.08.)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위원회는 그동안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할 예술위원회가 본분을 다하지 않고 사명마저 저버린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 〈불신의 힘〉, 〈후시거나 포켓포〉 공연팀을 비롯하여, ‘팝업씨어터’ 참여 공연팀들에게 사과드립니다. 특히 당시 공연을 방해받은 상황에서도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했던 〈이 아이〉 출연 배우 김원정, 임영준, 황순미 배우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팝업씨어터’를 기획했던 예술위원회 직원 염한별, 김준수, 김진이 씨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예술가들께 사과드립니다. 사건 당시 동 공연을 보신 관객 분들은 물론, 이후 예술위원회가 본분과 사명을 지키는 기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을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예술위원회는 다시는 이렇게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작년 말 조치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정직 등 징계처분과 관련 현업과의 격리 등 인사 조치 외에도, 제도 개선, 내부 고발자 보호, 직원 교육 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거나 하고자 합니다.

블랙리스트를 계기로, 예술현장과 소통하여 이슈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고자 현장소통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심의업무 공정처리규정」을 제정하여(2018.10.5.) 심의업무 수행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등 조치하였고, '부당한 업무 지시 발생에 대한 대처'를 주제로 하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2019.04.30. 나주, 2019.05.01. 서울), 예술지원의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하에서 문체부와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자 조만간 자율운영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팝업씨어터’를 포함한 일련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하여, 피해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현장과 함께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팝업씨어터’ 사태의 해결 과정은 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가들과 예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위원회가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며, 피해 예술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 회복의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9년 7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팝업씨어터 관련 후속조치 사항

□ 기 진행된 후속조치

- 관련 직원 징계처분('18.11월)
 - '18.7.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 징계시효 종료 3명 등 10명을 제외한 13명에 대하여
 -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으로 '18.11월 징계처분 완료
- 관련 현업에서 격리한 인사조치
 - 현재 13명중 2명은 퇴직, 11명은 전원 지원사업, 극장운영 등 당시 관련분야 현업에서 타 분야로 전보 조치 완료
- <현장소통소위원회> 구성 운영(2019.2월)
 -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현장과 소통, 이슈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고자 구성·운영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예술위원회 행동강령 개정(2018.7.2.)
- 「심의업무 공정처리규정」제정(2018.10.5.)
 - 심의업무 수행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조치 실시
- 임직원 대상 부당업무 지시 대처 관련 교육(2019.4~5월)
 - <예술행정 직무독립성 강화> 교육 2회 실시
 - 일시/장소 : (1차) '19.4.30/나주 본관, (2차) '19.5.1/아르코미술관
 - 강사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블랙리스트 관련 축소·폐지된 사업 복원
 - 블랙리스트 사태로 현장 의견과 무관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을 복원하여 현장수요에 기반한 지원구조를 정상화함
 - 문예지발간지원 : 15년 10억 → 16년 폐지 → 17년 5억, 18년 10억, 19년 8억
 - 작가창작지원 : 14년 9.9억 → 15년 6.9억으로 축소 → 16년 3억으로 재 축소 → 17년 2.7억, 18년 10억, 19년 9억
 - 공연장대관료지원 : 15년 33억 → 16년 폐지 → 17년 15억, 18년 33억, 19년 29.52억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 15년 11억 → 16년 폐지 → 17년 10억, 18년 10.5억, 19년 9.5억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9.7.1 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 '팝업씨어터'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발표('19.7.19)
 - 사전협의(7회)를 통한 예술위원회 공개사과문 및 피해자 입장문 발표
- 아르코혁신TF 23대 혁신 의제 도출 및 아르코비전2030 수립('19.10.22)
 - 관련 주요의제
 -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예술현장 소통 강화
 - 예술적 전문성 요구 분야에 대한 개방형 직위 도입 · 운영
 - 공모 및 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국민 참여 확대 등 예술현장의 대변자로서 예술위원회 역할 강화(예술인 ombudsman 제도)
 -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 의견 반영 확대
 - 심의제도 혁신

□ 향후 추진 과제

- 팝업씨어터 문제부 공청회 추진('19.12.2)으로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론화 및 후속조치 계획 논의
- 예술공간운영본부 폐지 및 극장장 직위공모('20.1월 예정) 통한 공연장 운영 독립성 확보와 현장 소통 강화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20년)
 - 구체적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예술행정 체계 구축
 - 직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내재화 도모

* 교육 과정(안)

구분		주요 커리큘럼	교육 목적
전사교육		• 블랙리스 피해내용의 사례 공유 (실제 피해자를 교육 강사로 섭외)	예술현장과의 교감 확보
계층별 교육	간부급	•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블랙리스트 재발 위험요소 제거
	중간관리자 (과·차장)	• 고객관계관리(CRM) 교육 • 현장중심 문화예술정책, 장르별 동향 및 예술가(단체) 실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프로세스 개선
	실무자 (주임·대리)	• 장르별 현장체험 • (아르코아카데미) 예술위 지원 예술가 초청 강연	현장의 동반자로 예술가 인식

- 피해자 명예회복 및 블랙리스트 사건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사업(예 : 예술의 자유를 주제로 한 공연 등) 추진
 - 2015년 대극장 폐쇄로 공연이 취소된 바 있는 서울연극제 3개 단체(극단 명작옥수수밭, 극단 광장, 극단76단, 극단 죽죽)에 대해서는 3년 내 공연장 무상 대관 지원을 제안하였고, 서울연극협회와 협의 중임
 - 이 외에도 피해 예술인을 포함한 현장 예술인과 협의 기획·추진하겠음

- 2015.9. 〈팝업씨어터〉 참여 예술가 섭외(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블랙리스트 적용 사실 확인)
- 2015.10.17. 〈팝업씨어터〉 참가작 〈이 아이〉가 세월호를 연상시키자 공연 취소 논의 등 대책회의 진행 (공연예술센터장, 운영총괄본부장, 문화사업부장, 무대예술부장), 대책회의에서 다음날 공연방해 결정→ 문화사업부장, 담당자에게 공연 취소 지시 → 담당자(김진이)의 거부
- 2015.10.18. 〈팝업씨어터〉 참가작 〈이 아이〉 공연 방해, 공연 일시 중단 조치
- 2015.10.19. 〈팝업씨어터〉 후속 연극 두 개의 작품에 대한 대본 요구(검열 의도 포함), 씨어터카페 공연 작품 장소 변경 통보
- 2015.10.22. 〈팝업씨어터〉 후속 연극 작품 〈후시거나 포켓포〉, 〈불신의 힘〉 공연팀 보이콧
- 2015.10.27. 김정, 윤혜숙, 송정안 연출가 항의글 게시(페이스북그룹‘대학로X포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원게시판)
- 2015.10.29. ~ 11.22. ‘팝업 릴레이’ 피켓 시위 / ‘파법(破法)씨어터’ 릴레이 퍼포먼스
- 2015.10.30. 문화사업부 민원 답변글 게시(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문체부 예술국장 직접 수정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
- 2015.10.30. 문화사업부장의 답변에 대한 3인 연출의 공동 입장 발표
- 2015.11.2. 담당자(김진이),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 위원장(박명진)에게 〈팝업씨어터〉 경과 보고 및 내부 조사요청
- 2015.11.3. 담당자(김진이), 공연예술센터장에게 면담 요청했으나 공연예술센터장 거부, 담당자(김진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출연하여 공익제보
- 2015.11.4. 공연예술센터장 민원게시글에 대한 답변글 게시
- 2015.11.11. 〈팝업씨어터〉 사태 공동질의서 제출 (공동발의자 연극인 132명)
- 2015.11.9. ~ 11.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팝업씨어터〉 민원 관련 사실관계 확인 조사
- 2015.11.19. 〈팝업씨어터〉 담당자(김진이) 무대예술부 발령(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자 부당한 전보조치)
- 2015.12.3. 〈팝업씨어터〉 담당자(김진이) 퇴사
- 2015.12.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팝업씨어터 관련 조사보고’ 결재(자체조사보고 허위 작성)
- 2017.2.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박명진) 사과문 발표 (1차)
- 2018.4.1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박근혜 정부, 세월호 연대한 문화예술인에-‘집요하고 끈질긴 탄압’〉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관련 블랙리스트 대표 사례로 〈팝업씨어터〉 사태 진상조사 개요 발표

- 2018.4.2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팝업씨어터> 진상 조사결과보고서 완료 (신청인 김정, 윤혜숙, 송정안)
- 2018.5.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 대국민사과' @예술가의 집 (2차)
- 2018.10.15. ~ 10.19. <팝업씨어터> 피해예술인들, 징계 요구 시위 @대학로예술극장 앞
- 2018.11.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박종관), 블랙리스트 피해 연극인 간담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팝업씨어터> 사태 후속 조치 이행 요청 (1차)
- 2018.11.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 발표, 징계 조치
 - 최종 징계 결과 :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엄중주의 2명 등 총 23명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분 완료
- 2018.12.3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계획 종합 보고회(도종환 문체부장관 사과) @국립현대미술관
- 2019.1.22.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극인 간담회' (문체부 1차관 참석) @대학로연습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팝업씨어터> 사태 후속 조치 이행 요청 (2차)
- 2019.3.31. 연극계 검열백서위원회, '우리 모두의 만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출간 기념 @씨어터카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팝업씨어터> 사태 후속 조치 이행 요청 (3차)
- 2019.4.10. <팝업씨어터> 후속 조치 논의 1차
- 2019.5~6. 발표 사과문 공동 작성 및 면담 2차~7차 추진
- 2019.6.20. 제26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보고 및 의견수렴
- 2019.6.28. 제253차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및 전체 위원 의견수렴
- 2019.7.4. 박종관 위원장과 <팝업씨어터> 피해자 그룹 사전면담
- 2019.7.12. <팝업씨어터> 사과문 및 입장문 발표 계획(안) 구성 실무자 회의
- 2019.7.19. <팝업씨어터> 사과와 입장문 발표 @씨어터카페
- 2019.9.10. 문체부 공청회 추진 논의 1차 (문체부 예술정책과 및 이행협치추진단-예술위원회)
- 2019.10~11. 문체부 공청회 추진 논의 2차~4차 (문체부 예술정책과 및 이행협치추진단-예술위원회-피해자 그룹)
- 2019.12.2. 문체부 공청회 <팝업씨어터 공개사과 이후 :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시작하며> 개최 @씨어터카페

